경기천년 GYEONGGI MILLENNIUM
도큐페스타 DOCUFESTA

경기 아카이브_지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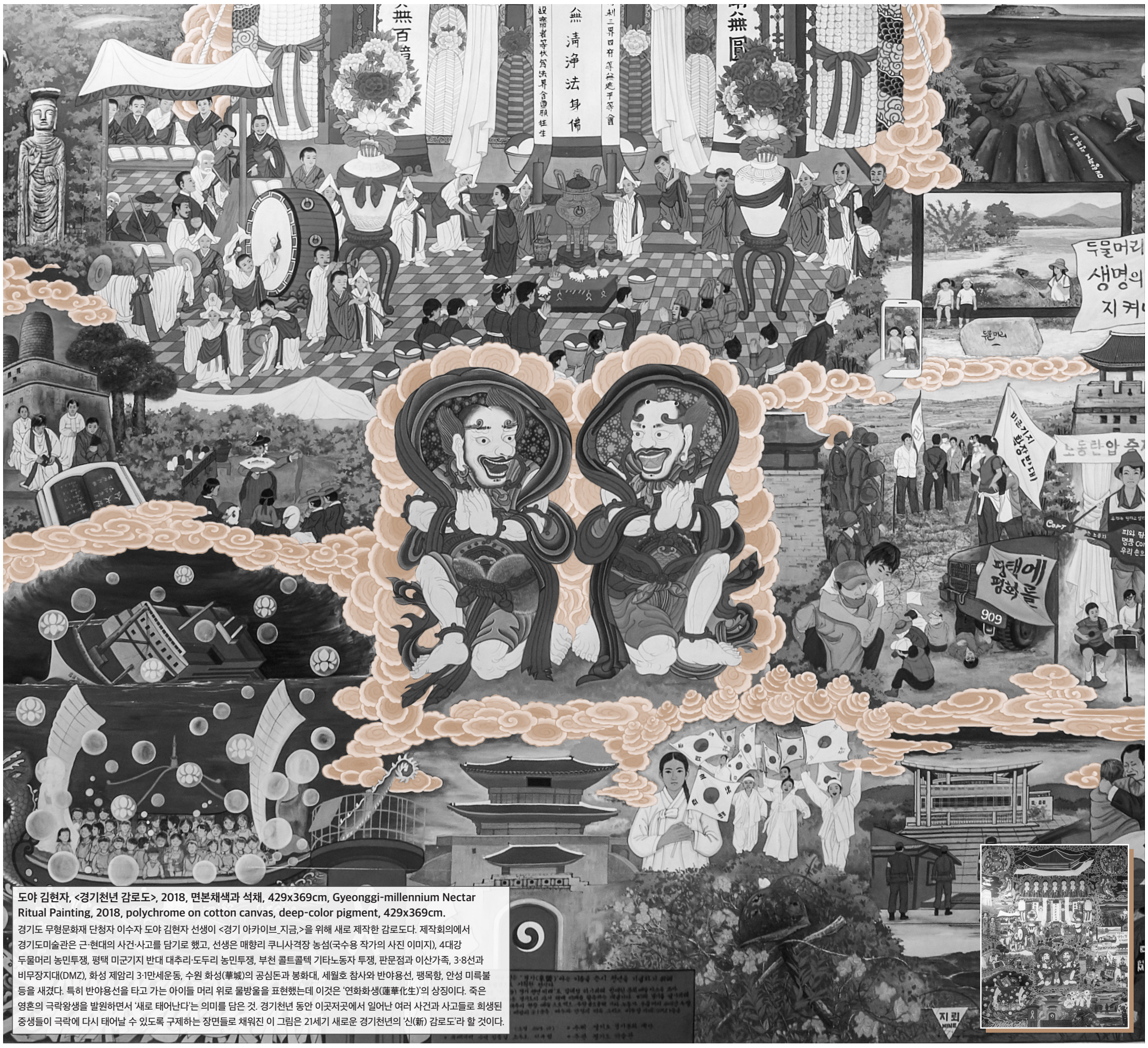
Gyeonggi Archive Newspaper_3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GMoMA Special Exhibition
경기 아카이브_지금,
GYEONGGI ARCHIVE_NOW.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발행인 : 김현태(대표이사 직무대행) * 편집인 : 최은주 * 편집장 : 김종길 * 발행일자 : 2018. 10.15

●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GYEONGGI MILLENNIUM DOCUFESTA는 경기천년을 맞아 경기문화재단이 개발한 공식 워드마크이다.

주소: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청년1981 2층 NPC CAMP // 홈페이지: http://ggma.ggcf.kr // 이메일: ggcf1000@gmail.com // 인스타그램: @gyeonggi1018.2018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yeonggi1018.2018 // 전화: 031-296-1833~1840 // 팩스: 031-296-1766



도야 김현자, <경기천년 감로도>, 2018, 면본채색과 석채, 429x369cm, Gyeonggi-millennium Nectar Ritual Painting, 2018, polychrome on cotton canvas, deep-color pigment, 429x369cm.

경기도 무형문화재 단청자 이수자 도야 김현자 선생이 <경기 아카이브_지금,>을 위해 새로 제작한 감로도다. 제작회의에서 경기도미술관은 근·현대의 사건·사고를 담기로 했고, 선생은 매향리 쿠니사격장 농섬(국수용 작가의 사진 이미지), 4대강 두물머리 농민투쟁, 평택 미군기지 반대 대추리·도두리 농민투쟁, 부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판문점과 이산가족, 3·8선과 비무장지대(DMZ), 화성 제암리 3·1만세운동, 수원 화성(華城)의 공심돈과 봉화대, 세월호 참사와 반야용선, 팽목항, 안성 미륵불 등을 새겼다. 특히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아이들 머리 위로 물방울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연화화생(蓮華化生)'의 상징이다. 죽은 영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면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은 것. 경기천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과 사고들로 희생된 중생들이 극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장면들로 채워진 이 그림은 21세기 새로운 경기천년의 '신(新) 감로도'라 할 것이다.

문학_쓰고,
책은 문화이자, 공공재다!
인터뷰어: 최윤정_큐레이터(문학 파트)
인터뷰이: 조성면_문학박사, 수원문화재단 팀장
02

문학_쓰고,
경기문학의 '소굴'을 소개합니다
최윤정_큐레이터(문학 분야)
03

문화재_홀리고,
경기도 문화재 톺아보기
조두호_큐레이터(문화재 파트)
04

그물코 전시 길라잡이
05

전시 연계 프로그램
12

문화재_홀리고,
경기도 문화재 톺아보기
조두호_큐레이터(문화재 파트)
13

대중음악 아카이브_음악다방_듣고,
근대 대중음악을 들어 보실래요?
이생강_큐레이터(대중음악 아카이브 파트)
14

천년극장_보고,
전시장 속 영화관이라고요?
이생강_큐레이터(영상, 설치, 미디어 파트)
15

경기천년

경기천년은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정해진지 천년이 된 것을 말한다.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 연혁에 따르면 고려 1018년 현종 9년에 행정제도를 정비하면서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그 주변의 12개 군과 현을 묶어서 '경기'라고 불렀다. 2018년은 그 이름이 탄생한지 천년이 되는 해다. 또 1018년은 경기제(京畿制)의 시행과 함께 경기문화(京畿文化)가 태동한 해다.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천년 도큐페스타'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천년을 맞아 기획한 경기천년사업의 대표 브랜드다. 경기천년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종합예술 브랜드로, 경기 아카이브전과 경기천년 대축제, 도민정책 상상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책은 문화이자, 공공재다!

인터뷰어: 최윤정 | 큐레이터(문학 파트) , 인터뷰이: 조성면 | 문학박사, 수원문화재단 팀장

<경기아카이브_지금,>의 <문학사_쓰고,>와 <사상사_사랑하고,> 파트에서는 초판본과 유물자료로서 서지류가 함께 소개되었다. 경기문학사를 기획 자문했던 박설희 시인이 조성면 문학박사/수원문화재단 팀장을 소개했다. 전시에 대한 취지를 공유한 후, 그가 수집한 자료 중 전시에 소개할 자료들을 함께 분류하는 과정을 진행했고, 총 100여점이 넘는 그의 자료들을 이번 전시에 소개할 수 있었다. 그의 초판본과 유물자료들이 갖는 주제적 범위는 방대한 것이었다. 근·현대 한국 대표 작가는 물론 경기도 출신 작가들의 작품 초판본과 각종 희귀본을 소장하고 있었고, 조선 실학사상에서 개화기에 유입한 사상들에까지, 그러니까 동학을 포함해 민족종교에 관한 서지류 자료는 이 땅의 사상적 흐름을 생생히 증거하는 것들이었다.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을 그 수많은 자료에 놀랐고, 첫 만남은 그야말로 '노다지!'를 맘껏 외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이 서지류들을 어떤 동기로 모으기 시작했는지.

책을 사보는 것은 오랜 습관(?)으로 1980년대 초 중학생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내버스비가 50원이었던 시절 150원쯤 하던 삼중당 문고와 추리소설, 만화책을 조금씩 사 모으던 습관이 여든 살까지 간 격이다. 고서와 헌책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것은 대학원생 때다. 도남 조윤제 선생의 『한국문학사』 초판본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이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원전 자료를 찾아다니며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고서를 샀다.

주말이면 청계천이나 인사동 주변을 들락거리며 책 구경하고 형편에 따라 샀다. 이런 수집벽으로 인해 영인본이나 복사물로 형성되기 어려운 특이한 감각, 예컨대 각 시대상과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생겨난 것 같다. 헌책과 고서 수집은 연구 활동이자 노마드북 · 오케이서적 · 북스트리트 · 호산방 · 신밧드북 등의 인터넷 서점들이 주요 경로였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소장품'의 묘미를 보여주는 책들을 소개해 달라.

전적으로 내 개인의 취향이겠으나 한국근비평사의 핵심이며 문제적 인물이었던 임화의 평론집 『문학의 논리』와 해방 공간기에 다시 나온 회상시집 『현해탄』, 「민족개조론」으로 파란을 불러일으켰던 춘원의 평론집 『조선의 현재와 장래』, 1930년 브나르도 운동 당시 이윤재 선생이 대중용 한글교육을 위해 만들어낸 팸플릿 교재 『한글공부』, 임학지의 『중동전기본말』을 번역하여 광무 3년(1899) 황성신문사 번역하여 출간한 『중동전기』 등을 꼽고 싶다. 덧붙여 한국 최초로 번역된 『자본론』 초판 등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기 바란다. 당시 맑시스트 지식청년이 보던 책인 듯 각종 메모와 감상담이 적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책은 문화이자, 공공재다" 단언하셨던 장면이 생생하다. 끝으로 당부하는 내용과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연구와 논문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다보니 제법 책이 모이게 되었다. 요즘은 이런 자료들을 더 보완하고 결국에는 사회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화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문학관 설립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수원문학, 경기문학을 아우르는 문학관 설립에 관심이 많다. 대한민국의 이 두 분께서 하지 않은 대중문학 분야를 연구하여 '대중문학의 논리' 또는 '장르문학의 논리'를 만들어 보리라하는 욕심도 났다. 그러나 타고난 역량이 부족하여 그저 장르문학을 꼼꼼히 살펴보고 성찰하는 '산책' 정도로 목표를 수정했다. 『경인일보』에 201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2년간 '장르문학 산책'을 연재했고, 현재 소명출판에서 책으로 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락지, 『중동전기』, 황성신문사, 1899(국한문 혼용 번역본)
재중 서양 선교사가 설립한 서학 지식 보급 단체 '광학회'가 월간지 『만국공보』를 통해 전쟁 기사를 연재하고 있었다. 『만국공보』 주필 임락지(林樂知, Young Allen)는 이를 바탕으로 1896년 『중동전기본말(中東戰紀本末)』을 출간했는데, 청일 양국 자료는 물론, 서양 언론 보도에 기초해 '청일전쟁사'를 구성한 것이었다. 언론인 유근(柳瑾)과 사학자 현채(玄采)가 발췌·정리하고 국한문으로 번역한 『중동전기』는 1899년 황성신문사에서 간행되었다. 원본에는 없던 조선 궁내부 대신 이재순의 편지(조선의 '대군주 폐하'가 이 책을 읽고 책을 지은 임락지에게 수를 놓은 병풍을 선물하게 했다는 내용)가 번역본에 실렸다. 이 책은 단순히 좁은 의미의 청일전쟁사가 아니라, 서양 근대 문명의 수용과 거부라는 맥락에서 중국의 실패와 일본의 성공을 대비시켜 근대 개혁을 이끄는 정론서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윤재, 『한글공부』, 신가정, 1932
한글학자 이윤재가 지은 것이다. <브나로도('민중 속으로'라는 뜻) 운동> 당시 쓰인 교재로 일제의 우리말 말살정책에 대응하여 국민계몽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당대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팔천 문자보급운동의 일환으로 출간되었다. 신가정(동아일보 자매지)에서 발행되었다. 우리나라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다.

임화, 『현해탄』, 건설출판사 재판본, 1947(건설출판사는 시인 조백암이 운영했고, 초판은 1938년 2월에 동광당서점에서 펴냈다). 1부 2부로 나누어 총 24편의 시를 실었다. 초판에서는 41편의 시를 담았으며, 4가지 테마로 이어지는 연작시로 구성되었다.

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초판본, 1940.
1934년부터 1940년 1월까지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던 임화의 평론들을 추려 구성한 책이다. 10장의 구성으로 총 42편의 평론이 수록되어 있고, 문학과 사회, 장르의식 등 비평적 안목이 체계화되어 있는 본격적 평론집으로 의의를 갖는다. 책의 표지는 화가이자 미술사가였던 근원 김용준이 만들었다.

춘원 이광수, 『조선의 현재와 장래』, 여문당, 1923
친일파로 변절한 후 민족개조론을 주창하면서 출간한 평론집 초판이다.

정협지, 1963, 김광주 저, 신태양사_대만의 무협소설 검해고홍(위지문 저)을 번안하여 1961년부터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작품이다. 한국 최초의 무협소설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시인선집, 1958_원전은 '조선시인선집'(1926)으로 분단 속에서 이름을 바꾸어 위험을 무릅쓰고 이론사에서 극비 출판한 것이다. 극 휘귀본으로, 월북작가들이 포함된 시선집이다.

삶이 순탄치 않은 것 같다. 그야말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다섯 살 때다. 막내이모님 손을 잡고 외가에서 친가로 돌아오는 길 막재밭 언덕(화성시 정남면 망월리와 음양리 사이의 작은 언덕) 위에서 막내이모님에게 문학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책보고 노는 데만 관심이 많다. 사람을 잘 사귀나 조직생활은 무지하게 싫어한다.

시간강사하며 보따리장사 10년에 평택대 대우교수, 인하대 강의교수, 인하대 BK연구교수 등 현존하는 비정규직 교수를 두루 섭렵하다 지금은 수원문화재단 팀장으로 근무한다. 21년의 세월을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니 내가 생각해도 기적 같다. 학계와 문단의 말석 맨 후미진 곳에서 아무도 읽지 않을 논문 40여 편과 300여 편 가량의 평론과 잡문을 쓰느라 고생만 했다.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 밥값은 한 것 같다.

취미이며 내게는 또 한편 '문화보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수집의 주제와 기조, 그리고 그 경로가 궁금하다.

통상 고서라 함은 1959년 이전에 출판된 책을 말하는데, 나는 수집가라기보다는 연구이자 취미에 가깝다. 남애 안춘근, 사운 이종학, 파른 손보기, 천혜봉 선생님 등 서지학자들과 고수급 수집가들에 비하면 나는 중수쯤 되려나 모르겠다. 전공이 전공인 만큼 한국근대문학, 추리소설 같은 대중소설, 수원 출신 문학인의 작품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여기에 문사철(文史哲)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낸 작가의 저서나 희귀 자료라면 전공과 무관하게 구입한다.

주로 들려보는 서점은 서울 인사동의 화봉문고와 승문각, 수원의 오복서점과 남문서점, 인천의 아벨서점, 신촌에 있던 공씨책방과 정은서점, 천안의 갈매나무서점과 뿌리서점, 부산 보수동 서점가 등에 중심인 경기도와 그리고 인구 125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도시 수원에 내세울만한 대표 문학관이 없다는 것이 놀랍고 아쉽다. 이제 두 번째 천년을 맞이하는 경기도가 이제는 근사한 문학관을 보유할 때도 됐다.

월북 작가인 임화의 평론집『문학의 논리』 초판본이 사상사 파트에 소개되어 있다. 전에 이 책에 대해 언급하실 때 그 애착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책인가.

임화는, 아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시인이요 평론가다. 한국근대문학, 한국근대비평사상 최고의 평론가이자 문제적 인물이었다. 대학교 2학년 가을 국문학과 학생의 소개로 임화의 '신문학사' 관련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한참 정치경제학과 경제사 관련 책들을 읽고 있었는데, 45년 전에 한국 평단에서 이런 글이 나왔다는 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후 임화의 『문학의 논리』 영인본을 제본(지금도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하여 열심히 탐독했던 기억이 난다. 『문학의 논리』는 문청 시절 하나의 좌표였다. 그래서였는지 임화의 『문학의 논리』, 최원식의 『민족문학의 논리』를 이어 나는 책은 100인의 작가 외에도 지금 현재도 생성되고 있는 경기도 문학들을 꾸준히 다뤄야 한다는 의제 하에 한국작가협회, 경기문학위원회, 현대문학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작가들과 2000년대 이후 등단한 작가들을 조사하여 주요 작품 목록을 만들었다. 목록에 기반하여 모을 수 있는 책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 또한 경기문인협회 소속의 작가들도 선뜻 책들을 보내주어, 전시기간 중에도 수집이 꾸준히 진행형이다. 이 책들은 꾸준히 늘어 4개의 방 햇살 잔잔한 창가 선반에 놓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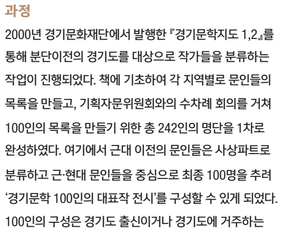
*두 번째 방 #102호*는 작가들의 창작이 태동하는 장면을 상징하는 생생한 육필원고와 대여해온

경기문학의 '소굴'을 소개합니다

최윤정 | 큐레이터(문학 파트)

과정

2000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행한 『경기문학지도 1,2』를 통해 분단이전의 경기도를 대상으로 작가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책에 기초하여 각 지역별로 문인들의 목록을 만들고, 기획자문위원회와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100인의 목록을 만들기 위한 총 242인의 명단을 1차로 완성하였다. 여기에서 근대 이전의 문인들은 사상파트로 분류하고 근·현대 문인들을 중심으로 최종 100명을 추려 '경기문학 100인의 대표작 전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100인의 구성은 경기도 출신이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작가를 기본으로 하되, 문학사적 위치, 경기의제를 담아낼 작품을 고려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문학_쓰고의 *첫 번째 방 #101호*는 '경기문학 100인의 대표작 전시'로 꾸려졌다.

100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수원 : 김광주 김남일 김소진 김윤배 나혜석 박팔양 염재만 윤성희 윤수천 정수자 최동호 홍성원 /성남 : 오봉옥 조정래 최일남 현기영 /의정부 : 김명인 조해일 천상병 /안양 : 김대규 조동범 /부천 : 변영로 문동만 양귀자 펄 벅(Pearl S. Buck) /평택 : 박석수 박후기 /광명 : 기형도 황규관 /안산 : 고정희 김명수 김훈 심훈 윤후명 최인훈 /고양 : 공지영 김사인 박종화 최창균 /과천 : 이윤기 임철우 조길성 /구리 : 방정환 한용운 /남양주 : 구효서 김지원 김채원 문익환 박영한 이광수 /시흥 : 김신용 윤의섭 이무영 /군포 : 윤흥길 /의왕 : 신현림 /용인 : 민영 송영 유완희 윤정모 이기형 이혼복 /파주 : 강신재 박복수 원희석 /이천 : 이문열 이인직 이건청 /안성 : 고은 박두진 임홍재 정진규 조병화 /김포 : 한하운 박철 이문재 천승세 /양주 : 홍명희 /여주 : 유주현 /화성 : 박승극 송기원 이덕규 이문구 이원 정대구 최정례 홍사용 홍신선 홍일선 /광주 : 유진오 최찬식 박상우 /연천 : 김오남 김상용 임영태 /가평 : 조세희 /양평 : 김인숙 /개성 : 황석영 /개풍 : 박완서 송병수 마해송 (총 100인)

책을 모으는데 있어서 절판되거나 중고서점을 통해서도 구할 수 없는 책들이 여럿 있었는데, 기획자문위원, 전시 스태프, 주변지인들, 그리고 조성면 선생님을 통해서 그 결핍을 해소할 수 있었다. 오히려 비열람 자료가 더욱 추가되어, 100인의 목록에 포함된 작가들의 초판본과 오랜 책들을 함께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읽고, 보고, 시대적 향취도 느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목록은 100인의 작가 외에도 지금 현재도 생성되고 있는 경기도 문학들을 꾸준히 다뤄야 한다는 의제 하에 한국작가협회, 경기문학위원회, 현대문학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작가들과 2000년대 이후 등단한 작가들을 조사하여 주요 작품 목록을 만들었다. 목록에 기반하여 모을 수 있는 책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 또한 경기문인협회 소속의 작가들도 선뜻 책들을 보내주어, 전시기간 중에도 수집이 꾸준히 진행형이다. 이 책들은 꾸준히 늘어 4개의 방 햇살 잔잔한 창가 선반에 놓여졌다.

*두 번째 방 #102호*는 작가들의 창작이 태동하는 장면을 상징하는 생생한 육필원고와 대여해온 80~90년대의 초판본들과 영인본들을 전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 #103호*는 육필원고와 작품들을 직접 편안히 독서할 수 있도록 열람대 등을 설치하였다. 육필원고는 김남일, 김신용, 박철, 송언, 송영, 양귀자, 윤수천, 윤정모, 윤흥길, 이기형, 임철우, 임헌영, 정대구, 정수자, 정진규, 최일남, 현기영, 황석영 홍신선 총 19인의 주요작품 21점으로 문인들의 살아있는 필체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특유의 문체적 특징이나 작품의 내용, 고뇌와 고심 등 창작의 장면에 보다 가까이 마주하게 한다.

*마지막 방인 #104호*는 실천적인 문학운동의 향방들을 다루었다. 문학의 자율성을 위한 구호보다도 시대와 사회와 연관하여 인간에 대한 물음을 꾀하자고 하였던 문학의 흐름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주요 구성으로서는 역사자료로서 저항적이고 실천적인 움직임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문학인들의 소식지였던 '자유실천문인소식' 창간호부터 '민족문학회보', '작가회의 회보'그리고 최근까지 한국작가회의 소식지 등 80년대 시대적 상황에서 문인들의 발언과 활동들을 담았던 서지류들, 사진앨범을 전시한다. 그리고 분단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 접경지대와 DMZ, 그리고 매향리와 대추리, 4대강에 이르기까지 이를 주제로 한 문학들과 관련자료가 함께 소개된다.

흥미롭게도 <경기아카이브_지금,> 전시의 기본 공간연출 방향은 다양한 시각예술작품들이 공간 곳곳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펼쳐져 있다는 점이다. 기운은 작은 책에서부터 낱장의 자료 그리고 색채와 표정을 담은 시각예술작품에도 이어져 유기적으로 태동하며 주제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발언하고 있다. 문학방에 머물어 책들을 직접 열람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심지어 가을이지 않은가!

100인의 문학을 읽다!

염재만, 『반노』, 한진출판사, 1969
1969년도는 부정의 종결이 3선 개헌을 위해 정치적 긴장 분위기를 조성했을 시기로 피폐한 경제 이유로 소위 '월남전쟁'에 및 정예 병력(군인)이 파병되었던 시기이다. 이 소설집은 전쟁(군인)과 관련된 소설 7편을 기획 묶어 출간한 것으로 이 중 「반노」는 1968년 6·25전쟁 당시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포로가 된 국군 장교가 남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포로가 된 국군 장교가 남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염재만 #반노 #한진출판사 #1969년대

조해일, 『아메리카』, 책세상, 1974
1970년대 미국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그린 연작소설이다. 이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아메리카 #책세상 #1974년대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세미, 1987
1980년대에 원미동이라는 지명이 고유명사로 도시 근교의 서민들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미동 사람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여기에 실린 6편의 소설은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시 빈민층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집은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다룬 작품들로 분단문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작품은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시 빈민층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1987년대

홍성원, 『디데이의 병사』, 창작사, 1984
이 소설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문학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포로가 된 국군 장교가 남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포로가 된 국군 장교가 남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홍성원 #디데이의 병사 #창작사

오봉옥, 『봉의산 피리』, 실천문학사, 1989
1945년 해방을 전후 해 태어난 작가의 무명에 천착한 소설집. 1970년대 사회 현실의 모순을 비판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사회 현실의 모순을 비판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오봉옥 #봉의산 피리 #실천문학사

박석수, 『자전거에 못 박힌 한반도』, 책미, 2010
'여자의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는 말에서 착안한 박석수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자전거라는 소재를 통해 여성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 시집은 '여자의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는 말에서 착안한 박석수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자전거라는 소재를 통해 여성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박석수 #자전거에 못 박힌 한반도 #책미

김명인, 『동두천』, 문학과지성사, 1979
1970년대 미군 주둔지이자 기지촌 동두천을 배경으로 한 연작시집. 이 시집은 1970년대 미군 주둔지이자 기지촌 동두천을 배경으로 한 연작시집. 이 시집은 1970년대 미군 주둔지이자 기지촌 동두천을 배경으로 한 연작시집. 이 시집은 1970년대 미군 주둔지이자 기지촌 동두천을 배경으로 한 연작시집.
#김명인 #동두천 #문학과지성사

김남조, 『남한산성』, 한국문학사, 2007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와 신하들의 고뇌를 그린 역사소설. 1636년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이 소설은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와 신하들의 고뇌를 그린 역사소설. 1636년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이 소설은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와 신하들의 고뇌를 그린 역사소설. 1636년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이 소설은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와 신하들의 고뇌를 그린 역사소설.
#김남조 #남한산성 #한국문학사

문순태, 『타나토노트』, 정음사, 1990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타나토노트』는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이 책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을 기리는 작품이다. 이 책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을 기리는 작품이다.
#문순태 #타나토노트 #정음사

강신재, 『여자전쟁 미망록』, 동아출판사, 1962
1950년 여름에서 시월 수복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 가족이 겪는 피폐한 몰락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1950년 여름에서 시월 수복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 가족이 겪는 피폐한 몰락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강신재 #여자전쟁 미망록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민음사, 1977
'황구만'과 '황구만'의 아들 '황보일'의 부자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황구만'과 '황보일'의 부자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민음사

정현종, 『고통의 축제』, 문학과지성사, 1974
2번째 시집. 1부 '고통의 축제', 2부 '사물의 꿈', 3부 '나는 별아저씨'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2번째 시집. 1부 '고통의 축제', 2부 '사물의 꿈', 3부 '나는 별아저씨'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현종 #고통의 축제 #문학과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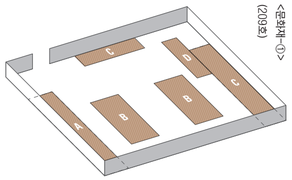
천승세, 『황구의 비명』, 책세상, 2007
대표작품들 외에 수록되지 않은 미수습 작품들을 모아 수습하여 펴낸 단편소설집.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모아 수습하여 펴낸 단편소설집.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모아 수습하여 펴낸 단편소설집.
#천승세 #황구의 비명 #책세상

이기형 지음, 현문재 엮음, 『이기형 대표시선집』, 푸른사상, 2014
통일시인 이기형 시인의 제1주기를 맞아 그의 대표시 100편을 한데 묶었다. 이기형 시인의 제1주기를 맞아 그의 대표시 100편을 한데 묶었다.
#이기형 #대표시선집 #푸른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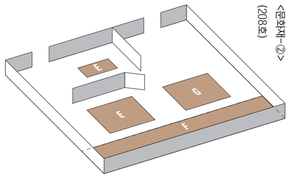
경기도 문화재 톺아보기

조두호 | 큐레이터(문화재 파트)

☞ 톺아보다 :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



<문화재-①> (209호)



<문화재-②> (208호)

'문화재_홀리고,'는 <문화재-①>(209호)와 <문화재-②>(208호)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다. 소식지 1호 8면 '문화원형의 천년 경기문화'에서 경기도의 유형·무형 문화재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각 방이 구성된 의도와 자료를 출품한 기관과 단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09호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냄새와 강렬한 인상의 탱화를 마주하게 된다. 10대 신령이 그려진 무신도(탱화)와 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신들이 함께 배치된 종합무신도(작자미상, 1970년대 추정)는 경기도에서 수집된 탱화이다. 자료 대여기관은 인천시의 사립박물관인 혜명단청박물관이다. 이곳 정성길 관장은 불화, 단청, 무신도의 수집가이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단청장이다. 근래의 무신도는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70년대 이전의 탱화들은 전통불화방식으로 수작업을 통해 그려졌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진열장 내부에는 월도창검과 무당부채, 방울, 작두, 오방기가 배치되었다. 이들은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되는 의례용 '무구(巫具)'로 예부터 내려오던 한양, 경기지역의 굿을 지내기 위한 도구로서 가치가 높다. 자료 출품기관은 서울 새남굿 보존회(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로 무구뿐만 아니라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정기공연자료 등을 함께 제공했다.

다음으로 경기도당굿의 보유자인 故오수복(1924~2011,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선생의 생전 공연 자료가 전시되며 영상이 상영된다. 고개를 돌려보면, 칠판에는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제작한 '경기도 대표유산 100선-지도위 쿵쿵 문화유산 줍줍'이 펼쳐진다. 경기도의 유형·무형의 대표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방식의 구성이다.

208호는 경기도에서 발간된 문화재 관련 서적들과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10년 단위로 발간하는 서적으로 경기도 유형·무형 문화재를 비롯한 기념물과 문화재 자료 등을 보여준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개원이후 경기도에 산재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약 180여권 발간했다. 발굴문화재보고서 전권과 발굴조사에 사용된 발굴도구들이 전시되어 현장감 있는 접근을 돕는다. 또한 비교적 관심 밖의 경기도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경기도의 발굴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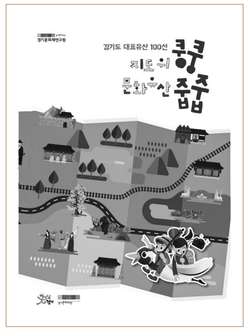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기무형문화재 대축제'의 기록자료가 전시된다. 예능과 기능으로 나뉘는 무형문화재가 각종 공연과 전시를 통해 도민들에 선보이는 장이자 무형문화재의 기록과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에 관심을 희망한다.

1. 경기문화재연구원

1999년 경기지역의 최초로 설립된 문화유적 발굴조사 전담기관이며 기전문화재연구원으로 출발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택지조성, 도로건설 등 개발에 따른 문화유산의 파괴에 앞선 구제 발굴조사와, 양주 회암사지·여주 고달사지·남한산성·북한산성 등 국가의 중요 사적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발굴조사를 담당한다. 또한 발굴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리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학으로서 경기학 조사·연구를 통해 경기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활용사업을 수행한다.

출품자료 : 경기고 대표유산 100선 지도위 쿵쿵 문화유산 줍줍 / 경기도 문화재총람, 발굴문화재 보고서 180여권 및 발굴도구

전시위치 : 209호 A / 208호 E, F



경기100선

문화재2번방_발굴보고서

경기문화재총람 1,2권

2. 혜명단청박물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기능보유자인 정성길 관장이 평생 수집해 온 자료들을 모아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문화의 거리에 혜명단청박물관을 2009년 4월 4일 개관했다. 단청이란 사찰이나 궁궐건축의 내외벽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물질 안료로써 장식문양을 그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단청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박물관이다. 박물관을 통해 단청과 문화예술품을 만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단청장으로 부터 단청의 이야기를 듣고, 생생한 교육을 체험할 수가 있다. 혜명단청박물관은 널리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릴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다.

출품자료 : 종합무신도, 10대 신령 무신도

전시위치 : 209호 C

종합무신도_혜명단청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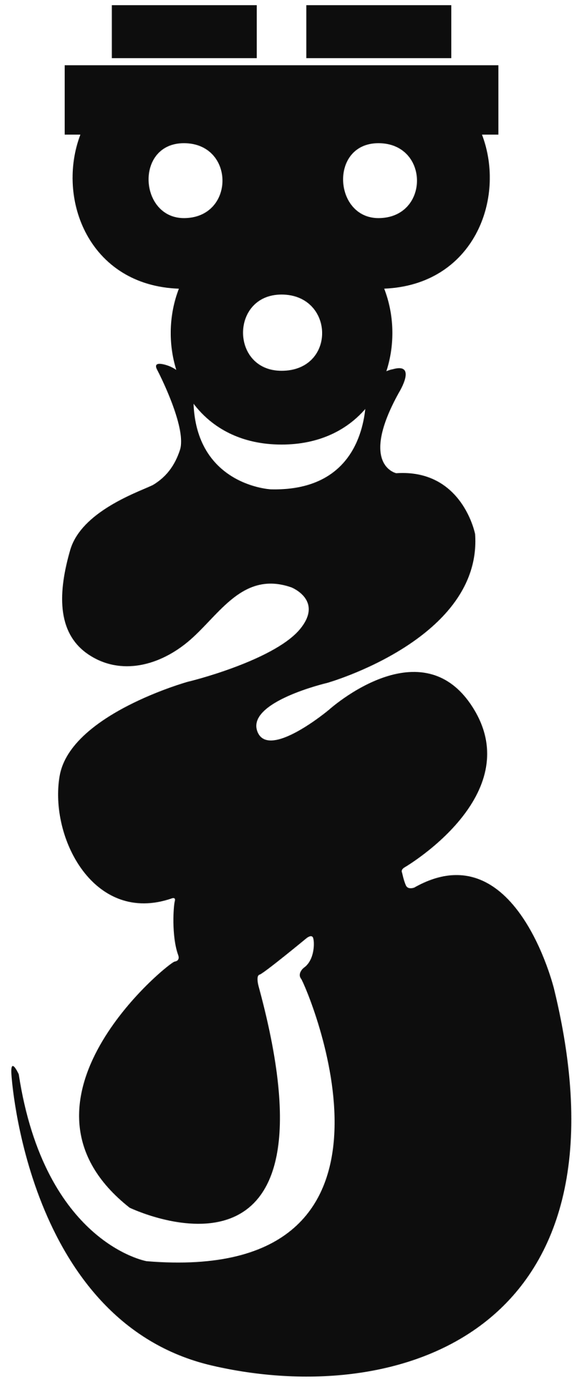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그물코 전시 길잡이

"그물이 천 코면 걸릴 날이 있다"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구)임학임산학관



2018.09.10.월 - 10.31.수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전은 문학, 시각 예술, 문화재, 사상과 학술, 기록 아카이브, 경기도 메모리를 망라하는 라키비움(larchiveum)형 전시다. 이 전시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은 총 59개의 방과 그 방에 있는 책, 사진, 영상, 회화, 조각, 설치 등의 예술 작품과 자료를 비단실로 꿰어 그물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물코 전시 길잡이'는 그물코 만드는 방법을 일러주는 '전시사용설명서'다. 59개의 방에 있는 작가들, 장르, 분야를 해시태그로 열쇳말을 만들었고, 소집단과 아트프로젝트는 짧게 설명서를 덧붙였다. 또한 관객이 즐길 수 있는 10개의 주제를 묶어서 주제에 따른 방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선을 짰고, 공간개념의 상징어인 '반야용선(般若龍船)'을 따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은 '사슴뿔 샤먼'의 문화인류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시를 통해 '생각하기'의 지적(知的) 유희를 즐기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미래 경기천년을 위한 상상구조는 '새 생각 틔우기'의 사슴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라키비움 :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다. 라키비움은 그 세 개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 반야용선 : 현실에서 반야세계로 가는 용 형상의 배다.

☞ 사슴뿔 샤먼 : 옛 퉁구스 족 샤먼은 사슴뿔 관을 쓰고 굿을 했다. '생각(生角)'이란 말은 저절로 자라기 전에 잘라 낸 사슴뿔이란 뜻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사슴뿔 샤먼'은 낡은 생각이 끝나기 전에 새 생각을 틔우는 예술가요, 몽상가다.

날개 안상수, 홀려라 2016,
캔버스에 아크릴 문자도, 259×194cm

문의
전화 031-296-1833~40
홈페이지 ggma.ggcf.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gyeonggi1018.2018
인스타그램 @gyeonggi1018.2018

주최	1080 경기천년 1018 2018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도미술관	협력·후원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사)경기도박물관협회, (사)한국작가회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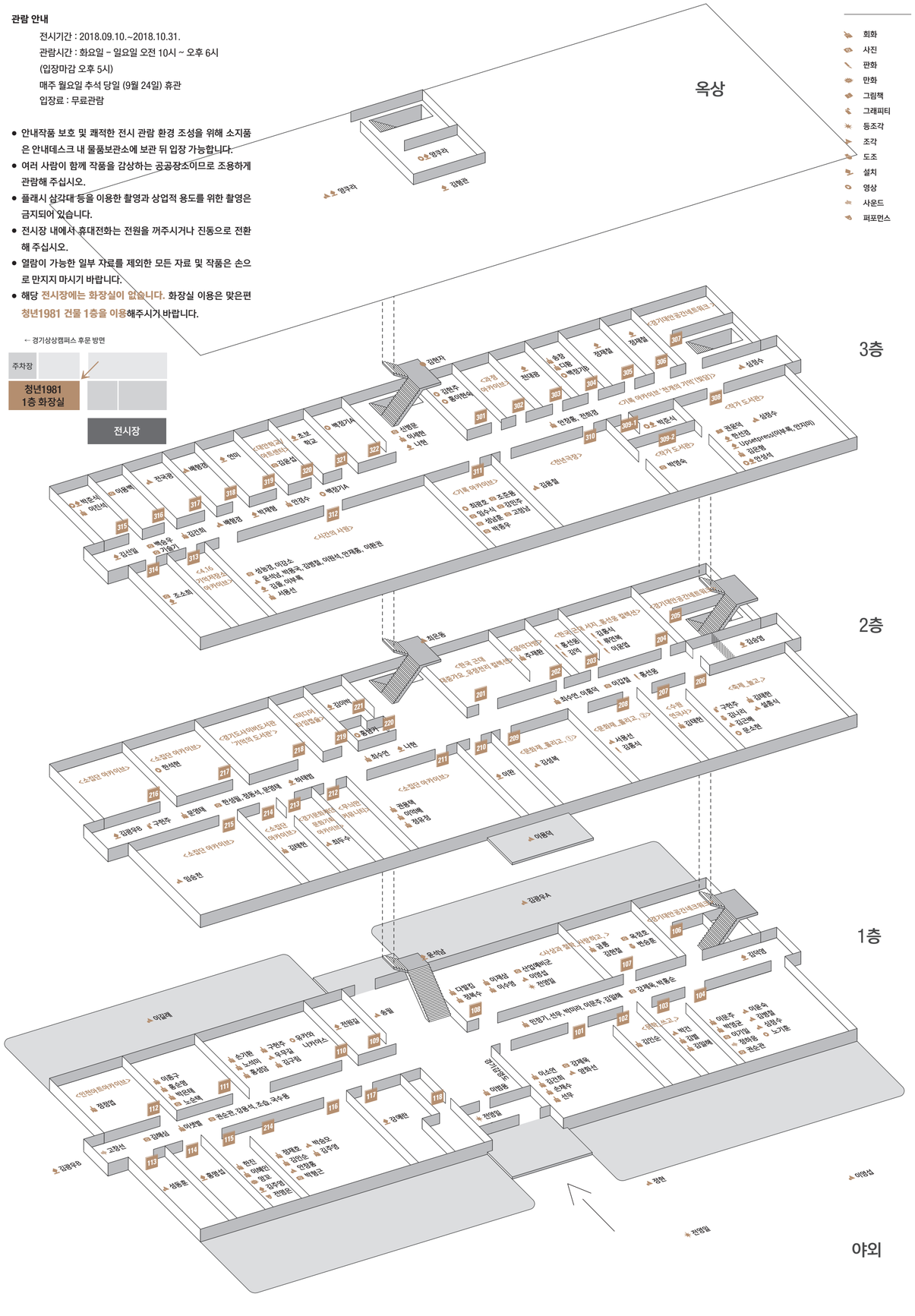
관람 안내

전시기간 : 2018.09.10.~2018.10.31.
관람시간 : 화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마감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9월 24일) 휴관
입장료 : 무료관람

- 안내작품 보호 및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소지품은 안내데스크 내 물품보관소에 보관 뒤 입장 가능합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공공장소이므로 조용하게 관람해 주십시오.
- 플래시 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과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시장 내에서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 열람이 가능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및 작품은 손으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전시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이용은 맞은편 **청년1981 건물 1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상상캠퍼스 후문 방면

주차장
청년1981
1층 화장실
전시장



아카이브_풀어 쓴 말

경기 대안공간 네트워크

경기도 대안공간은 6개소로 2002년 개관한 '대안미술공간 소나무'(안성)와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안양)을 시작으로 2003년 '접속공간 아트포럼리'(부천), 2005년 '대안공간 눈'(수원), 2007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안산), 2008년 '문화살롱 공'(의정부)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이미 90년대 등장한 서울의 대안공간이 실험적 예술 발견의 장이었다면, 경기도의 대안공간은 지역사회의 의제에 반응하고 공동체와 결합하면서 지역성을 각 공간에 녹여냈다. 실험적인 예술가의 발굴이나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대안공간의 유사성이라면 그 밖에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레지던시, 구도심의 문화 재생,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경기도 대안공간의 특징이다.

106호 _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2002~2013)
대표_박찬응 스톤앤워터는 비영리를 표방하는 대안적 복합예술 공간으로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활 속 예술"을 슬로건으로 "부족"과 "결핍"을 창의적 예술 활동으로 "보충"하고 "대리"하는 supplement space를 표방한다.
#석수시장 #돌물 #석수아트프로젝트 #사람 #물 #시장

106호 _ 대안공간 눈(2005~) 대표_이윤숙, 관장_김정집
수원의 구도심의 쇠퇴기에 지역에 뜻을 함께하는 작가들과 함께 공간을 계획하고, 직접 살던 집을 재생하여 지금의 대안공간 눈을 만들었다. 행궁동을 역사, 문화, 예술이 살아 있는 마을로 만들고자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골목길에, 빈 점포에, 철거 예정 건물에 작가들이 활동하며 예술을 통하여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
#행궁동 #골목벽화 #마을재생 #레지던시 #수원천 #화홍문

205호 _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2007~)
대표_송지은 새로운 삶과 예술을 실험하고자 하는 예술가, 비평가, 전시기획자, 시민운동가, 노동자, 이주민 등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이다. 안산 <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은 이주민이 80%가 넘는 이 지역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들이 집결해 있는 이 지역에서 문화생산과 교류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상호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사람들이 문화를 매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트머스'는 설립되었다.
#다문화 #을라붕따이 #바벨리스코스 #원곡동 #고려인식당

205호 _ 문화살롱 공(2008~) 대표_박이창식
삶과 예술의 이중주, 들숨과 날숨의 유기적 관계, 비주류 미술과 제3시각 예술을 표방하는 작가나 소재를 발굴 실천하는 마이너 언저리(Minor Enjuri) 예술 공간이다. 문화살롱 공은 경기 북부 지역의 해체위기에 있는 공동체나 지역에 스며들어 탐사와 수집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경기북부 #재인폭포 #도롱이집 #수몰지역 #여주두지 #권영우

307호 _ 대안미술공간 소나무(2002~) 대표_최예문, 전원길 소나무는 작업실과 갤러리, 소나무자연미술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미술공간으로 창작과 전시, 교육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표현, 특히 자연과 생태,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위한 연구와 발표, 교육을 실행하고 일반인과 예술인이 상호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해 문화적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시민사회를 형성한다.
#소나무갤러리 #자연미술 #금강 #야투 #녹색호흡

307호 _ 접속공간 아트포럼 리(2003~) 대표_이혼희
'접속'이라는 콘셉트를 지향하며 신진 작가 발굴과 새로운 조형적 실험에 대한 공간지원 등을 펼치며,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접속을 시도한다.
#부천 #삼정동 소각장 #서슴사냥 #접속공간

소집단·아트프로젝트·문화학교·아트센터

211호 _ 포인트(1979년) 시점·시점(1984~85년)
'포인트'는 1979년 12월, 수원의 당시 젊은 예술가의 그룹으로 백종광, 장영국, 최준일의 결합에 의해 창립된다. 이후 1980년에 박찬응, 이억배가 합류하고 1981년 3회전에 강문수, 문석배가 참여했다. 1984년, '포인트'는 '시점·시점'으로 개칭하고, 1985년 5회 전시를 개최한다. 이들은 당시 수원지역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대미술에 바탕을 둔 의식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다양한 장르의 조형 언어를 통해 사회와의 관계, 소외된 삶, 현실 비판적인 실존적 측면을 의식적으로 반영했다.
#포인트 #젊은 #수원지역 #우연한 발견 #故최춘일 #,,,,,, #쉼표

211호 _ 새벽 '새벽'은 1989년 첫 전시 <오늘 이 땅>전을 가졌고, 1990년에 <정치·정치··정치···>전을 수원 선화랑에서 열었다. 전신인 목판화 모임'판(1986년)'과 '수원문화운동연합_수문연(1987년)'에 몸담았던 예술가들이, 모순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자 조직한 미술동인이다. 새벽은 제도권 미술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하며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과 작가 개인의 실천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인으로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자료와 작품들은 1990년부터 새벽에 합류해서 활동한 권용택 작가의 소장 자료가 다수다.
#사회참여 #시대정신 #사회문제 #권용택 #새벽 #날밤 #야근

211호 _ 우리들의 땅(1989~99년) '우리들의 땅'은 1989년 10월 안양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참여작가는 류충렬, 홍대봉, 박찬응, 이억배, 권윤덕, 정유정, 유미선, 이정아, 권성택, 박신자, 황용훈, 정승각, 권용택, 손문상으로 수원과 안양 등지에서 각기 미술동인 활동 혹은 그룹 활동을 전개했던 작가들의 결합이었다. '우리그림'의 영향으로 걸개그림과 투쟁연작 제작, 노동자 문화학교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우리들의 땅'은 전문미술인으로서 창작의 문제와 함께 미술 대중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지속하다 10회 전시를 마지막으로 발전적 해체를 했다.
#우리들의 땅 #노동자 문화학교 #박창수 위원장 #삼양금속

211호 _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1987~89년)
'우리그림'은 홍대봉(불성사 주지스님, 불화전수자), 홍선웅, 박경원, 박찬응, 이억배, 주완수, 정유정, 권윤덕 등이 참여해 1987년에 창립전을 가졌다. 작가들은 작품뿐 아니라 시민·미술 교실, 연작판화, 걸개그림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88년에 노동자 미술패 '까막 고무신'을 견인했으며, 그린힐 봉제공장 화재사건으로 희생된 22인의 여성 노동자를 위한 합동 영정을 걸개그림으로 제작했다. 1989년에는 시민 미술 교실을 통해 육성된 시민들과 '신바람 나는 그림' 전시회를 개최했고, 그림책 '구름가족 이야기'를 제작했다. 이후, '우리그림' 참여자 다수가 그림책 작가로서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길을 갔다. 이들의 활동은 또한 <우리들의 땅>과 연계된다.
#우리그림 #시민미술학교 #그린힐 화재사건 #합동영정 걸개그림

211호 _ 컴아트 그룹 '컴아트 그룹'은 1990년 1월 1일, 이경근, 김석환, 홍오봉, 황민수, 허종수가 참여한 <다섯 칸>전을 계기로 발족했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서 컴(com)과 예술을 결합해 '컴아트'라 명명했고, 그것은 '교감예술' 개념이었다. 이후, 컴아트 그룹은 이경근이 운영하는 '장안미술관'을 중심으로 '교감예술제'를 매해 개최했다.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컴아트는 서울 중심의 미술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지향점을 탐색하며 국제교류와 전국단위 활동을 펼쳤다. 1998년에 이경근의 탈퇴로 사실상 해체를 하게 된 컴아트는 이후 수원지역의 설치·퍼포먼스의 작가층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컴아트 #교감예술 #커뮤니케이션 아트 #지역성 #설치 퍼포먼스

211호 _ 슈룸 '슈룸'은 순우리말로 '우산'을 뜻하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한다.'는 뜻을 가진다. 김성배, 이윤숙, 강성원, 도병훈, 전원길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1992년에 개최한 '슈룸 월드아트 프로젝트'에서 '슈룸'이란 명칭을 처음 사용했으나, 1988년 군포시 산본의 수리산 자락에 있는 '수리미술연구소'의 활동이 슈룸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까지 서울 소나무갤러리에서 전시를 수차례 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주 활동 무대를 수원으로 옮겼다. 그룹의 특정한 지향점이나 강제 없이 참여 작가들의 자유분방함을 인정하고, 여행이라는 유목민적인 행위를 통해 자발적인 창작 의지를 일깨우는 것이 '슈룸'만의 특징이다.
#우산 #유목적 여행 #월드아트 #자유분방

211호 _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2001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2001년 개최된 이래 2017년까지 총 9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와 이천이라는 지역성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한국의 대표 비엔날레로 성장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홀수년마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의 도자 예술가들이 모이는 도자 예술 축제이다. 비엔날레를 통해 도자가 지니는 인식적 한계를 깨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시도해왔다. 2017년에 열린 제9회 비엔날레는 광주, 이천, 여주에서 각각 '기억, 기록, 기념 : 삶을 돌아보다, 기리다, 말하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도자 #비엔날레 #여주 #이천 #경기도 광주

211호 _ 이천 조각심포지엄(1998년~) 1998년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첫 회를 개최한 이래 매해 진행하고 있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다. 2017년까지 20회를 거치며 230점이 넘는 작품들이 설봉공원, 온천공원, 복하천 수변공원 등 이천 곳곳에 설치되어 이천시의 조형예술에 대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참여작가 워크숍(조각작품 제작) 외에도 아티스트 토크, 도슨트 투어 등의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작가와 시민들의 소통을 통해 심포지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조각 심포지엄은 '꿈을 조각하다'라는 주제로 권치규, 반헌열, 양재건, 이성욱, 이수홍, 히로유키(일본)가 참여한다.
#조각심포지엄 #설봉공원 #조형예술 #꿈을 조각하다

212호 _ 무늬만 커뮤니티 살아있는 '무늬'는 밝고 활기찬 빛을 연상시킨다. 그런 빛이 '신명(神明)'이다. '무늬만 커뮤니티'가 지향해 온 것은 개인들의 '무늬'를 일깨워 더 밝고 활기차게 바꾸는 것이었다. 신명을 깨웠던 것. 신이난 아이처럼 신명이 밝게 터지면 사람은 그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춤추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를 위한 모뉴멘트>(2015)의 주국진 사장님이 그랬고, <총체적 난국>(2013)의 참여주들이 그랬으며, <후미코 컴퍼니>(2009)의 후미코가 그랬다. 어디 그뿐일까? 사실 그 춤의 내력은 <무늬만 커뮤니티>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리라. 그들도 그들 스스로가 사건이 되는 순간을 기획하면서 '무늬'를 가졌을 테니까 말이다. 이번 전시에서 '무늬만 커뮤니티'는 그들이 수행한 프로젝트의 키워드를 알고리즘으로 그려 넣었다.
#무늬 #신명 #무늬만 커뮤니티 #춤추는 존재 #수행성 #알고리즘

214호 _ 동두천프로젝트 동두천프로젝트는 2007년과 2008년, 2년간 인사미술공간이 기획한 동두천 지역에 관한 과정형 시각예술 프로젝트다. 한국과 뉴욕에서 작품 프리젠테이션, 강연, 토크, 토론, 지역주민과의 참여형 워크숍, 아카이브 전시, 필름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발견한 동두천의 당면과제가 비단 대한민국만의 특수상황이 아니라 아시아의 곤대 도시가 갖는 보편적 특성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획자 김희진, 작가로는 과거의 기록을 쫓는 고승욱, 주민들이 외부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을 포착한 김상돈,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는 클럽 여성들의 다양한 '소리'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아직도 미확인된 존재임을 알린 정은영,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시뮬라크럼을 통해 인식과 구조의 문제를 제기한 노재운이 참여했다.
#동두천시 #과정형 프로젝트 #아시아 근대도시 #미확인된 존재

215호 _ 성남프로젝트 1990년대 후반, 김태헌 작가는 당시 성남시 환경조형물 148건에 관한 실태자료집을 제작했다. 작가적 상상력의 예술작품이 아닌 것들을 연구해서 레디컬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허위성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제도비판미술을 선보였다. 이 자료집을 시작으로 프로젝트팀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오가며 예술이, 그리고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1998년 박찬경 기획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 구도심의 '모란시장' 리서치 프로젝트로 성남시청에서 전시를 열었다. 성남프로젝트는 지역성과 공공성을 화두로 진행한 최초의 리서치 기반 프로젝트로 남아있다.
#성남시 #천당 밑 분당 #공공성 #예술의 공적 역할 #리서치 기반 프로젝트 #제도비판 미술

215호 _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파티(PaTI)는 멋짓 배곳(디자인학교)이다. 2013년, 창의 교육을 목표로 디자이너들 스스로의 힘으로 파주출판도시에 세운 거룩한 배곳이다. 시각디자이너 날개 안상수와 여러 스승이 자발적인 뜻을 모아 파티를 세웠다. 파티는 제다운 가르침을 추구한다. "멋짓 가르침 자체가 곧 멋지음이어야 한다"는 바탕 생각으로 나라 안팎 배곳, 단체들과 손잡고 상상력 가득한 멋짓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파티 #거룩한 배곳 #멋짓 #날개 #제다운 가르침

215호 _ 목리창작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2001년부터 목판화가, 조각가 몇이 목리에 들어가 컨테이너 작업실을 꾸리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그 규모가 예술가들의 창작촌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도순 행복을 누린 시간은 고작 8년. 동탄2 신도시 개발이 목리에도 찾아들었다. 대장간을 차렸던 '화성공장'의 이근세,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이윤업, 조각가 천성명과 임승천, 붓을 놓지 않고 싶었던 최춘일, 목리를 그렸던 이윤기. 목리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자생적 예술가 공동체를 이룬 공간이었다.
#목리 #동탄 신도시 #창작촌 #자생적 예술가 공동체

215호 _ 마석동네페스티벌(MDF) 마석가구단지는 1960년대 한센인들의 정착지였다. 이후, 산업변화에 따라 가구공단으로 변모했다. 오래전부터 개발예정지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동네였지만, 2000년대 이후 폐허 같은 곳이 되었다. 믹스라이스는 2006년부터 이 공간에서 임시적 공동체의 생성과 유지를 위해 개인들을 연결하면서 그 결과물을 나누는 과정을 기획했다. MDF는 공장에서 락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싶어 했던 협업자 알롤과 함께 믹스라이스가 여러 뮤지션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관객들은 2012~2013년 소똥 냄새나는 공장의 옥상, 그리고 신나 냄새나는 불탄 공장 앞 공터 에서 한여름 밤의 꿈을 보냈다.
#마석 #믹스라이스 #임시적 공동체 #공장의 옥상 #한여름 밤의 꿈

216호 _ 두렁 미술 동인 두렁은 1982년 10월에 결성했고, 1983년 6월에 서울 아현동의 애오개소극장에서 창립 예행전을, 그리고 1984년 서울 안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림굿을 하며 창립했다. 탱화, 민화, 굿 그림, 탈춤, 마당극, 목판화 등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들을 보여주었고, 협동 창작론을 제시했다. '걸개그림'을 창시했고 1985년에 『민중미술』을 펴냈으며, '산미술'을 주창했다. 발두렁(현장), 논두렁(지원)으로 분화된 뒤의 지역 미술운동 자료가 출품되었다.
#두렁 #애오개 #열림굿 #민화 #굿그림 #민중미술

소집단·아트프로젝트·문화학교·아트센터

#산미술 #미술운동

216호 _ 바깥미술 바깥미술은 1981년 1월 <겨울·대성리 31인전>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화랑포 강변에서 시작되어 현재 37년에 이르렀다. 바깥미술은 '자연에서 펼치는 열린 예술'을 추구한다. 매년 극한 겨울 한파 속에서 치러지는 정기전은 태동 시기 독재정권과 제도권 미술의 형식주의에 반발하며 시대가 안고 있던 응어리를 풀어내려는 실천적인 움직임이다.

#국화주 #겨울한파 #오뎅탕 #대성리 #양평 #북한강 #시대정신 #자유 #바깥 #저항

216호 _ 대추리현장 예술아카이브 2003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발표되고 2006년 마을이 이전되어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이 노와리로 터전을 옮기기까지, 그곳에는 예술가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예술 방법론으로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거나,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어루만졌다. 대추리현장예술아카이브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첨예하게 보여주었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추리에서 벌어진 예술가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결과물로 아카이브 백서와 영상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미군기지 #마을이전 #식민지 #한국전쟁 #근현대사 #대추리 #도두리 #들사람들 #저항 #민중

217호 _ 황금산프로젝트 일제강점기 선감학원이라는 가슴 아픈 장소성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개발로 무참하게 파헤쳐질 장소다. 아직 그 고통의 역사 속에서 예술가들은 선감도를 연구하고 생존자들이며 그곳을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먹먹한 추억들을 끄집어내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 장소에 대한 '치유'의 행위로서 예술창작을 고민하고, 자연지물과 조화로운 작업을 꾀함으로써 장소와 사람, 역사, 상처, 치유에 대한 실천을 모색하였다.

#근현대사 #선감학원 #선감도 #염전 #일제강점기 #생존자 #경기창작센터 #기억지도

217호 _ 평화의 조각보 평화의 조각보는 2007년 3,700명으로 시작되어 해를 거듭하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이른다. 보잘것없는 작은 천에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느질하여 거대한 조각보로 잇는 과정 자체는 민중의 협동을 상징하며 기운을 모아 대동 세상을 기원하는 메신저가 된다. 수많은 이의 염원을 담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조각보는 분단이라는 상징적 장소(임진각, 민통선)를 덮기도 하고 전국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동체 예술이다.

#평화 #조각보 #300미터 #분단 #평화 #미술교육 #시민참여 #공동체예술 #소나무 #대동

217호 _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는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 공공예술 축제다. 안양의 역사, 사람, 생태, 자연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 도시 곳곳에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어가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이다. 2005년 개최된 첫 회 이래로 지금까지 총 5회가 개최되었으며, 내용으로 공공예술과 도시환경을 기본으로 하되, 리서치와 '참여예술'을 통한 공공예술의 지향점들을 담지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공공예술 #참여예술 #안양 #시민참여 #안양파빌리온 #APAP #안양예술공원

302호 _ 과정 아카이브 <경기천년사업 과정 아카이브: 기록 또는 기억>은 경기천년사업의 단어, 이미지, 문서, 영상으로 구성된 설치 작업이다. 벽 위에 그리고 쓴 글과 그림은 경기천년사업의 기록(물)을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내용들, 그리고 아카이브 전반의 수집, 생성, 정리에 관한 과정과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피티는 거리와 건물에 주로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그리는 기법으로, 벽에 그리는 그림은 동굴 벽화와 같이 기억이나 기록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진다. 영상은 아카이브의 주요 생산자인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과 여러 문화 기획 단체, 예술가, 기획자들의 활동 모습, 그리고 마치 심장 박동 그래프처럼 연속되는 기록물 데이터의 흐름을 재생한다. 계단은 높이 있는 그래피티나 영상을 관객이 올라가 조망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계단에 쓰여진 메시지는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간 개념(현용–준현용–비현용)이다.

#과정 아카이브 # 기록 # 수집 생성 정리 #그래피티 #메시지

311호, 3층 복도 _ 기록아카이브 '기록아카이브'는 999년이었던 2017년부터 1,000년이 된 2018년까지의 경기도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였다. 경기, 서른한 개 도시를 31명의 사진가들이 부지런히 담았다. 3층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벽면에 1,000컷의 사진이 수원화성의 돌담을 형상화하듯 설치했다. 그리고 방에서는 여덟 명의 작가가 여덟 개의 시각으로 바라본 경기를 만날 수 있다. 경기가 꿈꾸었던 '천년의 경기'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도큐먼트 한 <경기에서…천 개의 기억>은 이미지 시대의 도시 기억을 재발굴하고 수집하는 장대한 작업이었다.

#기록 아카이브 #경기도 #천년의 경기 #도큐먼트 #천개의 기억

215호 _ 마을재생프로젝트 문화마실벌터마을은 수원역과 경기상상캠퍼스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극심한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저개발과 소음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마을에 대한 문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조성 벌터문화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벌터마을 커뮤니티 하우스 '문화마실'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주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체 문화 형성과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한 문화적 환경 조성을 사업의 주요 틀로 구성하고, 그 속에서 마을 민주주의와 마을 경제의 개념들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벌터 #문화마실 #서둔동 #문화재생 #마을민주주의 #공동체문화

320호 _ 목판대학 목판대학은 한국현대목판화의 저변을 미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한국목판문화원이 기획한 핵심프로그램이자 장기프로젝트이다. 목판화 전반에 대한 내용, 형식, 매체 개념 전반에 대한 성찰을 근간으로 작업은 물론 연구적 토대를 구축해가기도 한다. 목판화를 매개로 타 장르 예술인을 시기별로 초대, 창작 방법론을 공유한다. 그리고 예술인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목판화 강의를 지속해서 열고 있다.

#한국현대목판화 #목판화 #한국목판문화원 #안성 #금광면 #판화교육 #목판대학 #미술교육

320호 _ 대안문화학교 달팽이 대안문화학교 달팽이는 경쟁이 아닌 공존을, 도시와 기계를 상징하는 '골뱅이@'와 달리 생태와 감성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예술 활동을 통한 대안 교육을 목표로 2001년 5월 개교하였다. 어린이, 중고생과 성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왔다. 달팽이는 때로는 복지와 전인 교육을 결합한 예술창작의 방법론을 결합한 수업을 지향한다. 그것은 문화예술의 역할과 교육이 지향할 가치에 대한 성찰에 뿌리를 둔 것이다.

#대안학교 #문화예술교육 #달팽이 #사진 #안성 #사진교육 #미술교육 #인성교육

320호 _ 밀머리학교 여주의 한 폐교에서 시작된 밀머리학교는 자연과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을 펼쳤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열린 의미의 생활 속 예술을 지향했다. 방학 예술캠프에는 시각문화 체험교실 등 정규프로그램이 있었고, 기획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체 장애어린이들과 보육원 어린이들, 그리고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따뜻한 왼손프로젝트'와 같이 미술을 매개로 서로 보듬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이자 모범인 것으로 회자된다.

#대안학교 #문화예술교육 #밀머리학교 #공공예술 #생활예술 #따뜻한왼손프로젝트 #여주

215호 _ 아트로드77 '아트로드 77'은 'With Art, With Artist'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수익금의 일정 금액은 기부하는 자발적 아트페어이다. '아트로드 77'의 77은 헤이리를 지나가는 국도 77번 '자유로'를 가리킨다. 예술로, 자유로, 평화로, 세계로 향하는 희망을 문화예술마을 헤이리에서 실현하기 위한 꿈을 담은 이름이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유로워 임진각 더 나아가 한반도 전역을 예술 벨트로 묶어주는 다양한 문화적 시도와 도전을 위해 2009년 아트로드77 조직위원회를 발족했고, 10여 년 동안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트로드 #헤이리 예술가마을 #자발적 아트페어 #예술로 자유로

320호 _ 에이블아트센터 에이블아트센터는 장애인 문화권리 실현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운 국내 최초의 전문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이다. 수원시에 기반을 두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ble'은 가능성의 의미. '에이블아트센터'는 그래서 장애우들이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표현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대안예술공동체의 역할도 모색하고 있다.

#에이블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 #가능성 #대안예술공동체

112호 _ 인천아트아카이브 인천은 근대 개항(1883)과 함께 외래문물 수용의 첫 관문이었고,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1899)이 개설된 개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1981년 7월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혼재된 역사적 흔적 속에서 다양성을 담지한 수도권의 메트로-도시로 성장해왔다. '인천' 파트에서는 60년대~70년대 당시 문화지형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물론, 포스터 및 리플렛의 문자 및 구성 디자인이 다채롭다. 80년대는 미술운동패 '갯꽃'의 활동을 중심으로 경기도 미술운동패들의 연대를 보여주는 '노동자판화순회전' 자료의 일부가 소개되어, 당시 경기도내 미술운동 및 교류에 대해 가늠할 수 있게 한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스페이스 빔이 태동하기 전, 지역미술의 탄탄한 기반들을 형성해온 '지역미술연구모임'의 활동자료가 일부 소개된다. 그즈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역미술 담론지로 출간되고 있는 시각전문잡지 '시각'의 98권 전권은 물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천지역 미술공간들의 활동을 담은 도록 및 책자들을 모았다. 인천음악사로서 80-90년대 인천의 클럽들과 음악감상실에 대한 자료와 당시 인천의 전설이었던 '헤비메탈 그룹들'의 사진 및 인터뷰 자료가 흥미롭다.

관객참여공간

216호 _ 미디어 타임캡슐 : 얼굴들 '얼굴들'은 관객 참여형 타임캡슐이다.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자의 얼굴을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작품이다. 관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경기도민의 얼굴을 기록함으로써 '경기인(京畿人)'이 누구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얼굴들 #타임캡슐 #기록 #경기인

218호 _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경기도메모리 경기도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는 경기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기록을 두루 넓게 수집하여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함께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구한다. 사진, 책, 일기, 영상, 소리, 잡지, 악보, 물건, 그림 등을 디지털로 바꾸어 서비스하는 것. 지금까지 공공기관, 도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등에서 수집한 자료는 51,868건에 이른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경기 아카이브_지금,>전에 '경기천년 메모리'를 주제로 전시한다. '경기천년 메모리'의 개념은 '기억의 도서관'이다.

#디지털아카이브 #메모리 #사이버도서관 #기억의 도서관

309(2)호 _ 작가 도서관 이곳은 전시에 참여한 시각예술 작가들의 도록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작가들이 추구해 온 작품세계는 다 달라서 이 전시에 출품한 작품만으로는 그 전체를 알기 어렵다. 도록은 그들이 어떤 작품세계를 추구해 왔는지를 살필 수 있는 참조점이다. 도록 표지에 붙은 라벨의 기호는 그 작가의 작품이 있는 위치다. 도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다시 그 위치를 찾아가서 보면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가 도서관 #도록 #작품세계 #다른 감흥

310호 _ 천년극장 '천년극장'은 전시장 속 영화관이다. 시각예술가들의 영상 미디어를 스크리닝하는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실제 영화를 상영한다. 금선희, 김기라, 무진형제, 믹스라이스, 박찬경, 임흥순, 정은영, 조영주 작가의 영상, 권효, 서동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최인규, 신상옥, 이원세 감독의 영화가 그것. 또한 이곳에서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시인과 소설가들의 낭독회와 강연, 워크숍도 진행한다. 문학 공연의 형식으로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색다른 감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천년극장 #영화관 #스크리닝 #낭독회 #문학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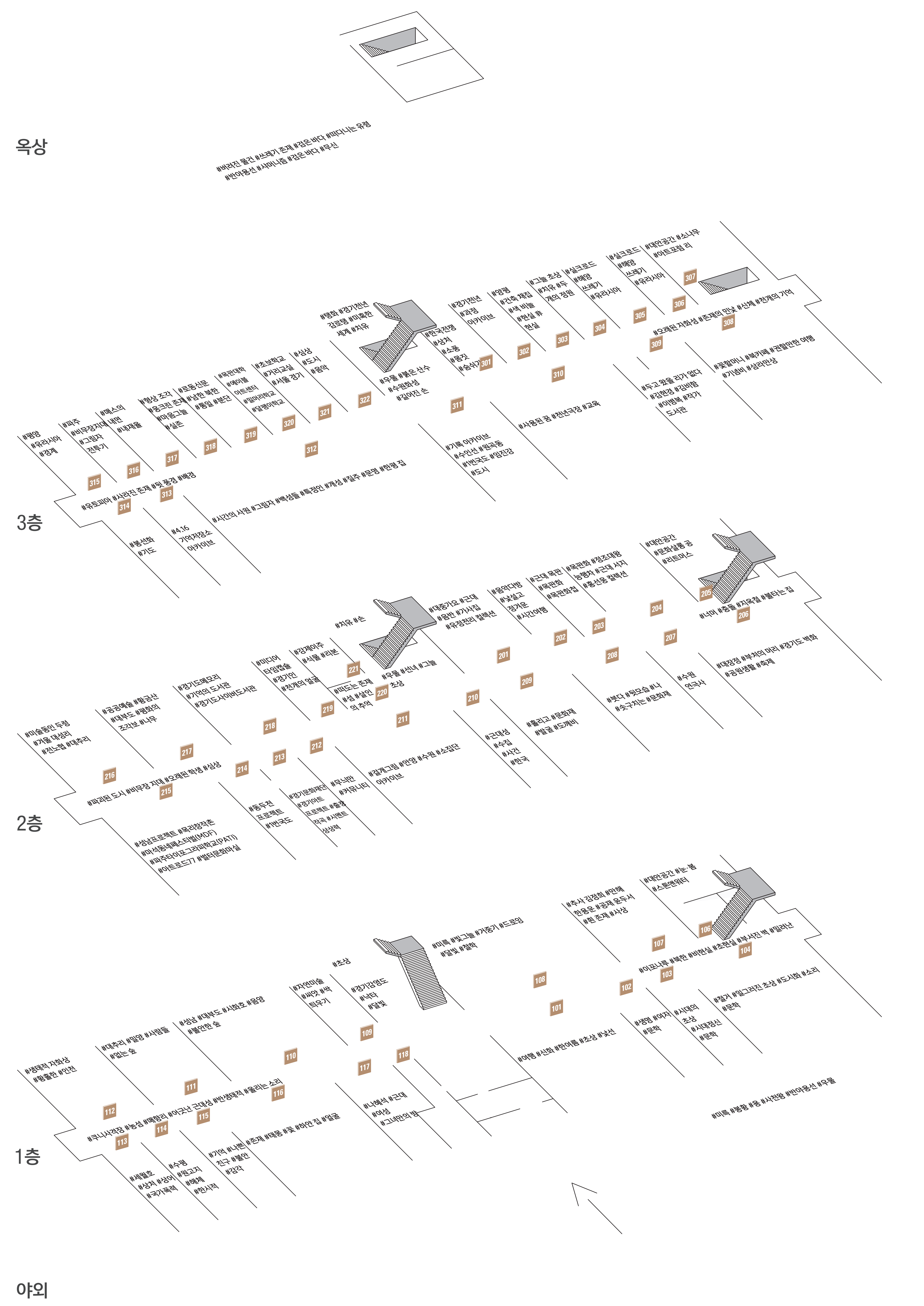
특별세션

313호 _ 4.16기억저장소 2014년 7월 세월호 시민기록위원회, 시민네트워크, 추모기록 자원봉사단이 통합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31일 '4.16기억저장소'로 명명되어 가족대책위원회에 헌정되었다. '4.16기억저장소'는 민간영구기록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장 기록으로는 참사관련기록(희생자 및 생존자 기록 포함), 유가족 활동기록, 서명 용지, 추모기록, 유가족 지원 활동기록, 기억저장소 운영기록, 구술기록 등이 있다. 그리고 공간 기록으로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유지. 보존 관리하는데, 기억교실은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및 이들의 희생으로 생명과 안전을 귀히 여겨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의 예술기획 활동 자료가 출품되었다.

#세월호 #4.16기억저장소 #기억교실 #보존 관리 #안전한 대한민국

321호 _ 초보학교 초보학교는 '연대, 공유, 자율, 창조'의 가치를 모색하는 '학교 밖 학교'이자 도시조형연구 협력체이다. 초보학교는 기존 미술교육제도의 창의적 변형과 함께, 각 참여자 고유의 예술가적 연구 방법론 계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시에서 초보학교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넘나들며 진행된 거리 교실로부터 포착, 수집한 특이한 조형 언어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자기 주도 학습과 자기성찰의 궤적을 소개하는 장을 선보였다.

#초보학교 #창의적 변형 #예술가적 연구 방법론 #거리교실 #자기성찰의 궤적



1	천년/역사+시간	전영일(야외, 108/등조각) ⋯ 전영일(로비/등조각) ⋯ 경기감영도(1층 로비/병풍) ⋯ 송필(1층 로비/조각) ⋯ 산업예비군+전영일(108/조각+등조각) ⋯ 변승훈(107/도조) ⋯ 김구림(110/회화) ⋯ 홍명섭(114/설치) ⋯ 고창선(1층 왼쪽 복도 끝/사운드) ⋯ 최은동(2층~3층 계단/조각) ⋯ 구헌주(206/그래피티) ⋯ 미디어 타임캡슐(219/김태윤+송효근/영상) ⋯ 경기도메모리(218/영상·설치) ⋯ 한석현(217/영상) ⋯ 과정아카이브(302/김진주/아카이브·설치) ⋯ 김은형(308/회화) ⋯ 김용철(310/조각) ⋯ 서용선(312/회화) ⋯ 박용국(312/조각) ⋯ 한성필(2층 복도 오른쪽/사진)
2	근대/근대성	이문주(104/회화) ⋯ 옥정호(107/사진) ⋯ 이문주(1층 복도 오른쪽/회화) ⋯ 강애란(117/설치) ⋯ 구헌주(110/그래피티) ⋯ 나현(2층~3층 로비/설치) ⋯ 대중가요(201, 202/이준희/음반, 가사집) ⋯ 주재환(202/회화) ⋯ 근대 목판(203, 204/홍선웅/책) ⋯ 이흥덕(2층 복도 왼쪽/회화) ⋯ 문소현(206/영상) ⋯ 이완(210/설치) ⋯ 최두수(213/조각) ⋯ 동두천프로젝트(214/김상돈+정은영/영상) ⋯ 황금산 프로젝트(217/설치) ⋯ 안성석(308/영상·설치) ⋯ 한선경(308/영상·설치·퍼포먼스) ⋯ 김신일(3층, 오른쪽 복도 끝/설치)
3	기억/상처+흔적	강제욱(101/사진) ⋯ 박건(103/조각) ⋯ 박미라(1층, 오른쪽 복도/벽화) ⋯ 노기훈+박영균+이기일+정하응+이수영(104/영상+회화+사진·오브제+사운드·설치+사진) ⋯ 김덕영(1층, 오른쪽 복도 끝/설치) ⋯ 손기환+유카와 나카야스(110/회화+영상) ⋯ 이종구+홍순명+박은태+노순택(111/회화+회화+회화+사진) ⋯ 한진(115/회화) ⋯ 이샛별+강용석+국수용(1층, 왼쪽 복도) ⋯ 김주영(115, 116/회화·설치) ⋯ 정재호(116/회화) ⋯ 성동훈(113/조각) ⋯ 김이박(221/영상) ⋯ 홍남기(220/영상) ⋯ 김억(203/판화) ⋯ 김근배(206/조각) ⋯ 김승영(2층 왼쪽 복도 끝/설치) ⋯ 천년극장(310/영상) ⋯ 대추리현장예술아카이브(216/서지류) ⋯ 임승천(215/조각) ⋯ 구헌주(2층 오른쪽 복도 끝/그래피티) ⋯ 기록아카이브[신병문(3층, 로비), 강진주, 최광호, 임수식, 성남훈, 박종우, 조준용+빛담(311, 왼쪽 복도/사진)] ⋯ 백정기(B/304/영상) ⋯ 정재철(305+306/설치) ⋯ 권윤덕(308/그림책) ⋯ Upsetpress(308/이부록+안지미/설치) ⋯ 기슬기(3층, 오른쪽 복도/사진) ⋯ 박재영(3층, 오른쪽 복도/설치) ⋯ 안경수(3층, 오른쪽 복도/회화) ⋯ 백승우(3층, 오른쪽 복도/사진) ⋯ 초보학교 거리교실(321/설치) ⋯ 4.16기억저장소(313/아카이브) ⋯ 조소희(314/사진·설치)
4	분단/풍경	선무(1층 복도 오른쪽, 101) ⋯ 박형근(116/사진) ⋯ 류연복(204/판화) ⋯ 문영태(2층 오른쪽 복도/사진·회화) ⋯ 정동석(2층 오른쪽 복도/사진) ⋯ 김태헌(214/회화) ⋯ 평화의 조각보(217/오브제·설치) ⋯ 김현주(301/영상) ⋯ 송창(304/회화) ⋯ 이부록(312/설치) ⋯ 박준식(309-1/영상·설치) ⋯ 연미(319/설치) ⋯ 이용백(316/사진) ⋯ 이진석+박준식(315/회화+영상) ⋯ 김광우(A/건물 뒤 오른쪽/구형 지프 설치)
5	신화/샤먼+전통	이영섭(야외, 108/조각) ⋯ 이용덕(현관 지붕canopy/조각) ⋯ 손채수(101/회화) ⋯ 다발킴(108/회화) ⋯ 김인순(102/회화) ⋯ 이윤숙(104/조각) ⋯ 최수연(2층 로비) ⋯ 김성복(209/조각) ⋯ 문화재(209, 208/굿그림·무구·서지류) ⋯ 김홍식(208/판화) ⋯ 서용선(208/조각) ⋯ 최수연(2층 왼쪽 복도/회화) ⋯ 이갑철(2층 왼쪽 복도/사진) ⋯ 김나리(206/도조) ⋯ 김광우(B/2층 오른쪽 복도 끝+야외/설치) ⋯ 김은형(308/회화) ⋯ 이강소+박용국+이원석(312/사진+조각+조각) ⋯ 김현자(3층 계단 위/감로탱) ⋯ 김형관(옥상/설치) ⋯ 이길래(건물 뒤 왼쪽/조각)
6	도시/지역+공동체	강제욱(1층 오른쪽 복도/사진) ⋯ 전명은(115/사진·아카이브북) ⋯ 인천아트아카이브(112/서지류+영상+사진) ⋯ 이윤엽(204/판화) ⋯ 축제(206) ⋯ 하태범(2층 복도 오른쪽/영상) ⋯ 무늬만 커뮤니티(212) ⋯ 성남프로젝트+마석동네페스티벌+목리창작촌(215/아카이브+회화) ⋯ 백정기(A/322/영상·설치) ⋯ 천대광(303/설치) ⋯ 문화마실+에이블아트센터(320)
7	공공/학교+대안	경기대안공간네트워크(1~3층, 106+205+307, 오른쪽 복도 끝 계단 전체) ⋯ 아트로드77+대안문화학교 달팽이+밀머리학교+목판대학+창문아트센터(320/서지류+아카이브+판화) ⋯ 동두천프로젝트(214/설치·영상·아카이브) ⋯ 파주 타이포그라피학교(215/회화·책·영상)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17/아카이브)
8	미술운동/시대+저항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우리들의 땅+새벽+컴아트 그룹+슈룹+권용택+이억배+정유정(211/서지류+아카이브+회화+그림책 원화) ⋯ 겨울 대성리+바깥미술+미술동인 '두렁' 걸개그림(216/포스터+걸개그림)
9	자연/생명+풍경	이범용(1층 로비/회화) ⋯ 전원길(109/설치) ⋯ 김건희(101/회화) ⋯ 양화선(101, 104/조각) ⋯ 김일해(103) ⋯ 이재삼(108/회화) ⋯ 박홍순(1층 오른쪽 복도/사진) ⋯ 민정기(1층, 오른쪽 복도/회화) ⋯ 김별(103/회화) ⋯ 노석미+홍성담+우무길(110/회화+조각) ⋯ 김인순(116/회화) ⋯ 이혜인(115/회화) ⋯ 김해심(1층, 왼쪽 복도/사진) ⋯ 홍선웅(203, 2층 왼쪽 복도/판화) ⋯ 한석현(217/영상) ⋯ 이세현(3층 로비/회화) ⋯ 전희경(3층 왼쪽 복도) ⋯ 정재철(306/설치) ⋯ 박용국(312/조각) ⋯ 김건희(3층 오른쪽 복도/회화) ⋯ 전국광(317/조각) ⋯ 양쿠라(옥상/설치)
10	초상/나들[個人]+너들[他者]	정현(야외 입구/조각) ⋯ 이소연(101/회화) ⋯ 정복수(108/회화) ⋯ 김현철(107/회화) ⋯ 김병철+권순관(104/조각+조각+사진) ⋯ 권순관(1층, 왼쪽 복도) ⋯ 안창홍(116/조각) ⋯ 박승모(116/조각) ⋯ 앙꼬(115/만화) ⋯ 정정엽(112/회화) ⋯ 윤석남(1층~2층 계단/조각·회화) ⋯ 설총식(206/조각) ⋯ 홍이현숙(301/영상) ⋯ 디황(304) ⋯ 안창홍(3층, 왼쪽 복도) ⋯ 심정수(3층 왼쪽 복도 끝/조각) ⋯ 안성석(308/영상) ⋯ 박영숙(309-2/사진) ⋯ 윤석남+이환권+김병철+김을+안재홍+성능경(312/조각·설치·사진) ⋯ 배형경(3층 오른쪽 복도+318/조각)
‡	반야용선(般若龍船)의 상징 그물코	전영일(야외/탑+금강역사/등조각) ⋯ 정현(야외 입구/중생/조각) ⋯ 이영섭(야외/미륵/조각) ⋯ 송필(1층 로비/사슴뿔/조각) ⋯ 성동훈(113/용머리/조각), 고창선[1층, 왼쪽 복도 끝/천년의 종소리/사자후(獅子吼)/사운드] ⋯ 김덕영(1층, 오른쪽 복도 끝/용꼬리/설치) ⋯ 이용덕(현관 지붕/용의 몸/조각) ⋯ 나현(2층, 3층 로비/땅 우물+하늘 우물/설치) ⋯ 문화재(208+209/산신각, 붓다/회화·오브제) ⋯ 김승영[2층, 왼쪽 복도 끝/역린(逆鱗)/설치] ⋯ 김신일(3층, 오른쪽 복도 끝/法/설치) ⋯ 기록아카이브(3층, 왼쪽 복도/보살/사진) ⋯ 김현자(3층~옥상 계단/감로탱·淨化/회화)

* 반야용선은 현실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중생들을 건네주는 반야바라밀의 배[船]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극락정토로 가기 위해서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을 타고 건너야 한다. 사찰의 대웅전(大雄殿)이 반야용선의 상징이다.

▶ 아카이브 자료와 작품 대여, 제공, 후원처

프로젝트/학교/아트센터 아카이브 작가 4.16 기억저장소, 고경표 '비온드레코드+인천 80-90년대 음악', 기록아카이브 : 최연하(기획), 강진주, 고정남, 김윤섭, 박종우, 성남훈, 신병문, 임수식, 조준용(작가), 최광호(옛날 경기 사진 제공), 천 개의 기억(빛 담, 31시,군 촬영)_ 김건우(가평군), 황영주(고양시), 윤재경(과천시),박찬호(광명시), 김낙용(광주시), 백형실(구리시), 이대환(군포시), 김빈화(김포시), 한기애(남양주시), 최옥윤(동두천시), 박수정(부천시), 안한식(성남시), 심선아(수원시), 김준영(시흥시), 이광순(안산시), 정지연(안성시), 신기철(안양시), 김나리(양주시), 이지혜(양평균), 박교현(여주시), 김병구(연천군), 이호진(오산시), 정숙희(오산시), 이상임(용인시), 김은경(의왕시), 심형호(의정부시), 석정(이천시), 하춘근(파주시), 김승희(평택시), 김선희(포천시), 류주연(하남시), 한정애(화성시) 대안문화학교 달팽이, 대중음악아카이브 : 이준희(기획), 유정천리(자료제공), 대추리현장예술아카이브 : 박영균-<대추리 들사람들>, 김홍기-아카이브 북 데이터, 동두천 프로젝트 : 김희진(기획자, 자료제공), 김상돈, 정은영(작가), 아르코미술관(VOL 지 제공), 마석동네페스티벌(MDF) : 믹스라이스, 목리창작촌 : 이윤기, 목판대학, 밀머리학교, 박영균-애니메이션 <이제는 하나다 전노협>, 벌터 문화마실 : 한문희(기획자), 성남프로젝트 : 김태헌, 이병철, 이돈순(작가), 아트스페이스 풀(자료 제공), 손기환-<만화정신전>, <한국미술 20대의 힘전> 슬라이드와 리플릿 등, 스페이스빔, 아트로드 77 : 아트팩토리(황성옥 기획자), 에이블아트센터 : 이마로, 임시공간, 전명은-<금곡의 기억>, 정정엽-두렁이야기그림, 갯꽃, 노동자판화전 작품, 서지류,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 날개 안상수, 황금산프로젝트 : 조민아-<옛 선감 이야기 지도>, 김선철-대부도 오래된 지도(역사지도), 평화의 조각보 프로젝트 : 최예문

기관 아카이브 자료 대여, 제공, 후원 군포문화재단, 다산문화제사무국, 두물머리픽쳐스, 미메시스아트뮤지엄, 반달, 수원문화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시네마 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성맞춤바우덕이축제위원회, 안양문화재단-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김중업건축박물관, 여주시세종문화재단, 연천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오산문화원, 오산문화재단,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이천쌀문화축제위원, 인천아트플랫폼, 자라섬재즈센터, 파주농업기술센터, 한국도자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화성시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협회 및 소속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아카이브 자료 대여, 제공 경기도의 굿-'경기천년 굿'시연 : 강소하(공연기획/'굿' 총괄), 경기문화재연구원, 무형문화재총연합회(임웅수 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도당굿 : 변진섭(전수교육조교/'굿' 연출), 중요무형문화재 새남굿 보존회(전경혜 총무), 혜명단청박물관(정성길 관장)

경기대안공간네트워크 작가/작품 아카이브 제공 대안공간 눈 : 故라겔 심브리(작품), 문화살롱공 : 故권영우, 故각심 김성욱, 노르베르트 베링거, 하정수, 김광우(작품) ,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 : 필름 '삽질'(故최고운), 접속공간 아트포럼리 : 허연화(작품),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 사운드아트 '지옥의 소리'(최윤석, 송아영, Qrator), 필름 '응옥의 패턴'(김승환, 박성율, 하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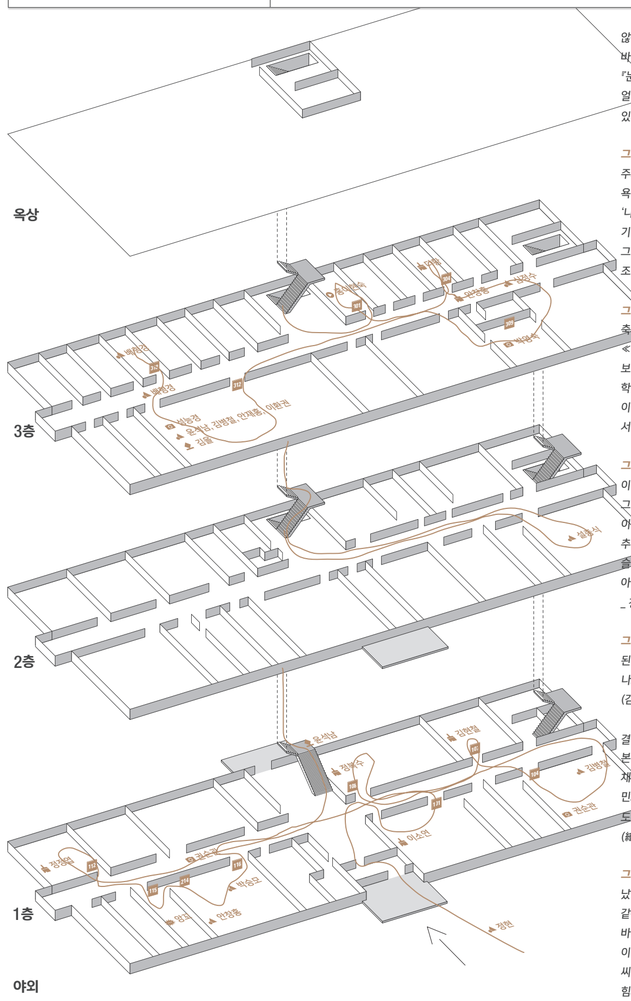
문학사 자료 대여, 제공 박설희, 육필원고 : 임헌영, 현기영, 정대구, 윤흥길, 윤수천, 윤정모, 김신용, 송언, 홍신선, 양귀자, 이휘건, 정수자, 임철우, 박소원, 정민영, 김남일, 윤석정, 조성면, 문학박사·수원문화재단 전통사업부 전통교육팀장, 최호정, 한국작가회의, 경기문인협회

사상사 자료 대여 조성면, 문학박사·수원문화재단 전통사업부 전통교육팀장

도움 대중음악다방 연출 _ 박지천(Neon), 이철수(Binwool), 한국영상자료원

※ 2018년 10월 1일까지 도착한 리스트임 ※ 자료와 작품을 대여, 제공,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상/나들[個人]+너들[他者]	정현(야외 입구/조각) ⋯ 이소연(101/회화) ⋯ 정복수(108/회화) ⋯ 김현철(107/회화) ⋯ 김병철+권순관(104/조각+조각+사진) ⋯ 권순관(1층, 왼쪽 복도) ⋯ 안창홍(116/조각) ⋯ 박승모(116/조각) ⋯ 앙꼬(115/만화) ⋯ 정정엽(112/회화) ⋯ 윤석남(1층~2층 계단/조각·회화) ⋯ 설총식(206/조각) ⋯ 홍이현숙(301/영상) ⋯ 디황(304) ⋯ 안창홍(3층, 왼쪽 복도) ⋯ 심정수(3층 왼쪽 복도 끝/조각) ⋯ 안성석(308/영상) ⋯ 박영숙(309-2/사진) ⋯ 윤석남+이환권+김병철+김을+안재홍+성능경(312/조각·설치·사진) ⋯ 배형경(3층 오른쪽 복도+318/조각)



그물코 하나 ; 정현의 서 있는 침목인간(枕木人間)들은 본래 침목이라는 재질이 함의하고 있는 '철도-시간의 바퀴'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엮어서 굴리는 방식으로 사유하게 한다. (…) 그곳에 서 있는 한 나무의 인간 형상은 한 인간이 아니라 근대적 주체들의 '모뉴망(monument)'일지 모른다. 그 주체의 형상들이 20세기를 횡단하고 21세기로 넘어와 지금 여기의 '광장'에 서 있다. _ 김종길, 「"희망의 노란 리본을 달고 무기를 드십시오!" 조각가 정현의 <서 있는 사람>」 중에서 2016.

그물코 둘 ; 작품 속 날카로운 눈매의 소녀는 작가 자신이다. 일종의 자화상인 셈인데 바로 밑에서 조명을 받은 듯한 연출은 작가의 표정을 더욱 낯설게 만든다.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내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상황은 근대 화가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다. 이로써 작가들은 귀족의 장식물에 불과했던 예술가를 창작의 근원으로 탈바꿈시킨 계기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소연 역시 본인의 내적욕구의 표출 도구로 이를 활용한다. _ 황인성, 「자브라이예의 언덕 넘어…」 중에서, 2013

그물코 셋 ; 정복수는 탐욕과 배설의 인간사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육체라고 말하며 얼굴부위와 몸의 안과 밖 부분을 도구처럼 절단하고 조합하여 인간이야기들을 그려 낸다. _ 김미진, 「존재의 비망록 : 운명과 욕망의 주체 사이」 중에서, 2011

그물코 넷 ; 전신(傳神)이란 초상화를 그릴 때 외모의 형사뿐만 아니라 내재된 정신성까지 사생해 낸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해악전신이란 바다와 산악의 내재된 정신성까지 표출해낸 산수화라는 뜻이다. 무정물인 산수가 이럴진대 유정물(有情物)인 동식물과 사람을 그리는데 있어서 그 정신성 표출여부가 얼마나 큰 열쇠가 되었겠는가. 겸재가 풍속인물화나 화훼(花卉)·초충(草蟲)·영모(翎毛) 분야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_ 최완수, 「금릉 김현철 초상화전에 부쳐」 중에서, 2008

그물코 다섯 ; 김병철의 조각은 노래가사와 같이 욕망의 한계를 모르는 추한 인간들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그의 작품은 욕망으로 성형되지 않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욕망의 이름으로 가꾸어진 모습으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부정하고 부정해보지만, 작가가 보기엔 우리의 모습은 왜곡되어 뒤틀려있다. 그 것과 마주한 우리는 생경하고 다소 촌스러워 보이는 색채와 거침없이 드러내는 또 다른 욕망의 상징인 남자의 성기의 모습에 거부감을 감추지 못한다. _ 이돈수, 「나에게 쓰는 넋두리」

그물코 여섯 ; 권순관의 『미완성의 변증법적 극장』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해석을 특정한 양상으로 제한하고 고정하는 힘을 변환시키려는 열망의 표현이다. 이는 공통감각의 지층을 인정하도록 억압하는 헤게모니의 잔혹한 이면을 들여다보고, 물신화된 인간적 가치들 속에 내재한 모순점을 발견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개인의 삶 속에 뿌리박혀 타성이 법칙으로 전환되는 모순과 부조리의 기만적 순간에 직면하여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환상의 모습으로 사고하기를 제안한다. _ 데이비드 형섭 최, 「미완성의 변증법적 극장에 부쳐」 중에서, 2013

그물코 일곱 ; 이 조각의 제목은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Jose Saramago)가 쓴 소설의 제목으로부터 따온 것이다. 소설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어느 도시에서 원인도 분명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갑자기 실명하는 전염병이 확산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소설의 한 대화에서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뜬 눈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보아야 했던 우리는 어느새 눈먼 자들이 되어버렸다. 안창홍이 『눈먼 자들의 도시』란 조각을 제작하면서 느꼈을 분노와 절망은 얼굴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특징만 지닌 작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_ 최태만, 「안창홍, 눈먼 자들」 중에서, 2017

그물코 여덟 ;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를 사유하는 주체인 나는 나의 육체인가 그 내부인가. 내부의 어둡고 두려운 욕망은 무엇인가. 그는 '나'를 물음으로써 사회를 벗어나려했고 '나'를 찾아냄으로써 인간들의 삶을 긍정했다. 그 시간들의 걸음은 기진했고 공백은 맥진한 숨결로 팽창했다. 존재의 잉걸불은 그 끝에서 타올랐다. _ 김종길, 「환(幻)의 미학 - 박승모의 조각론」중에서

그물코 아홉 ; 앙꼬의 『나쁜 친구』는 2017년 프랑스 앙굴렘 만화 축제에서 '새로운 발견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열아홉≫, ≪앙꼬의 그림일기≫를 통해 소소한 일상의 단면을 기발하게 보여주었던 그의 자전만화이다. 이 작품은 예사롭지 않았던 학창시절을 보낸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였던 ≪열아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열여섯'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_ 출판서 서평 중에서

그물코 열 ; "길 없는 길을 가는 동안 길 하나를 보여준 사람들 이미지가 먼저 오고 이야기가 따라오면 산책 하듯 그림이 그려집니다. 순전히 개인적 행운으로 다가왔던 만남입니다. 이름대신 떠오르는 어휘들을 적어봅니다 무장해제, 함께 춤을 추어요, 당신의 첫, 호기심 천국, 사랑받지 않을 자유, 고군분투, 슬픔이후, 치밀한 자유-심장의 목소리, 내 이웃의 아트,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선선한 산책자, 몸 짓…" _ 정정엽, 「얼굴 풍경」 중에서, 2009

그물코 열하나 ; "드로잉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 어떤 날은 하루에 일고여덟 작품을 할 때가 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현현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 윤석남 (김혜순 시인과의 대담 중)

그동안 작가는 촉각적인 재료인 나무가 갖는 거친 옹이와 결을 따라 간결한 선묘로 여성의 얼굴을 그려왔다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온 자화상은 먹선으로 형상의 윤곽선을 긋고 채색을 입혔다. 아울러 자화상과 함께 책거리를 재현한 것은 민화풍의 느낌을 재현한다. 그러나 작가는 전통 민화가 갖는 도상이다 색체의 개념보다는 단순 긋기(畵, drawing) 와 칠하기(繪, painting) 로 마감한다. _ 유선욱, 2018

그물코 열둘 ; 홍이현숙은 임수(壬水)와 갑인목(甲寅木)을 타고 났다. 그의 목(木)은 금기(金氣)의 상극(相剋)을 받지 못한다. 바람 같은 나무다. 그의 물은 우주를 품은 씨앗이다. 주역에서 물과 바람나무(風水渙)의 괘(卦)를 받아 보았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이미 떠나 변화하기 시작한 마지막 효(爻)가 홍이현숙에게 갔다. 씨앗이 바람을 모시었으니 불같은 목마름으로 새벽 세 시처럼 힘차게 일동(一動)할 것이다. _ 이수영

그물코 열셋 ; 그는 자신의 작업이 단순히 우화적 상상이나 가벼운 풍자, 해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첨예한 현실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은유적 현실'은 우화이되 인간 사회학의 관점을 상실하지 않으며, 풍자이되 비판적 현실주의의 개념적 뼈대를 놓지 않는다. _ 김종길, 「모순의 한국사회와 풍자의 '은유적 현실' - 설총식의 동물 의인화 기법과 신형상 조각론」 중에서, 2010

그물코 열넷 ; 디황 작가는 누구보다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의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묻고 또 묻는다. 작업을 통해 이에 접근하는 디황 작가는 마치 존재에의 물음이 단순한 사춘기의 열병으로 끝나거나 생의 중요한 순간에 의해 한꺼번에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다. _ 강보라, 「존재의 곁」 중에서, 2017

그물코 열다섯 ; 심정수는 1981년 여름 서울의 미술회관에서 그의 첫 조각개인전을 가졌었다. 전시장의 넓고 높은 공간 여기저기에 배치된 다양한 형태의 인체조각들일그러지고 뒤틀리고 잘려나가고 매달리고 갇히고 한 인체들은 마치 울부짖고 분노하고 신음하는 분위기를 발산하며 전시장을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차게 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충격의 드라마였었고 특히 80년초의 저 정치적 사건과 상처, 암울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었다. _ 김윤수, 「이 시대의 삶을 증언하는 아픔의 인간상」 중에서

그물코 열여섯 ; 사회적 풍경을 작품에 담아내는데 있어 안성석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출발한다. 주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동기나 배경은 매우 사적인 경험에서 파생된다. 작가의 시선은 사진으로 기록된다. 같은 공간에서 기록된 순간의 파편들은 작가에 의해 작품 위에서 교차되고 중첩되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며 보편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안성석의 작업은 절대 개인적이라고 할 수 없다. 변하는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실체, 즉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상적 존재를 그는 탐구한다. 최보경, 「코리아 투모로우 2017」 중에서, 2017

그물코 열일곱 ; 잠시 잊은 적은 있어도 잃어버린 적은 없다. 정신없이 헤매던 와중에도 놓아본 적은 없다. 두고 왔을 리가 없다. 그렇다. '나'는 '나'를 두고 왔을 리 없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박영숙 사진전 '여성 서사 여성 사물—두고 왔을 리가 없다'의 주인공은 여성 7명이다. 동갑이 세 쌍이나 된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영원한 연극계의 대모' 이병복, 고 김수영 시인의 아내 김현경이 1927년 같은 해에 태어났다. 서호미술관 대표 이은주,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배영환 삼화고속 회장의 부인인 박경애는 1934년생. 판소리 명창 최승희와 안동할매청국장을 수십년 운영해온 이상주가 1937년, 서양화가 김비함은 1929년생이다. 이들 모두 일제강점기, 분단과 한국전쟁, 군부정권 등 역사의 압착기에 개인의 운명이 내동댕이쳐진 험난한 시기를 헤쳐 왔으나, 각자의 삶에서 공통분모를 뽑아내긴 쉽지 않다. 하지만 박영숙 작가의 카메라 앞에서 '나 여기 있다'고 증언하는 모습은 한결같이 당당하다. _ 한겨레, 이주현 기자, 「모진 시절도 깎지 못한…'모난 언니들'의 자소서」, 2018.2.5.일자 기사 중에서

그물코 열여덟 ; <A Puddle>은 어떤 상황이요, 반영이어서 비실존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 아니 초현실에 가까운 제목이다. 게다가 그것들은 그림자의 주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오롯이 비춰진 모습으로 제작되었고 또 그렇게 바닥에 드러눕듯이 설치되었다. 분명히 그것들은 발바닥에 붙어 있어야 할 자신들의 실존을 잃어 버렸다. 게다가 이 작품들은 길거나 줄인, 그러니까 의도된 왜곡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 없다. 물웅덩이에 비친 모습 그대로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연 그대로의 왜상적 형상인 것이다. _ 김종길, 「관계의 타자들-이환권의 '없는 주체들'의 사회학」 중에서, 2017

그물코 열아홉 ; 나의 'twilightzone studio'는 오랜 창작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함께했던 내 스튜디오의 별칭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이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온몸(물론 정신도)을 집어넣고 온갖 상념과 진실들, 그리고 나와 나의 외부세계 사이에서 눈에 띈 보석같이 아름다운 것들과 생의 순간들 등등, 심지어 악마의 부드러운 노랫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녹여내고 두드려서 허술하고 애처로운 모습으로나마 종이 위에, 혹은 사진으로, 작은 덩어리로, 때로는 페인팅으로 드러내 왔다. _ 김을, 「봄비·긴 5월 Spring rain·Long May」, 2018

그물코 스물 ; 크고 작은 동관을 용접하여 일으켜 세운 안재홍의 인체 상들은 마치 대지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나무 같다. 묵직한 구조체를 지지하는 하체부분은 굵은 관들이, 머리를 포함한 상체부분은 분지하는 작은 관들의 구조가 부피를 만들어 그 안에 미세한 그물망을 형성한다. 그러나 나무처럼 대지 위에 우뚝 선 인체 상들은 밖으로 뻗어 나가기보다는 내향적이다. 그것들은 안으로 자라나며, 그 안에서 뒤얽힌다. 이러한 내향성은 자신을 바라본다는 전시 주제와 어울린다. _ 이선영, 「미지의 수많은 나를 바라보는 나」 중에서, 2013

그물코 스물 하나 ; <특정인과 관련 없음1>은 신문을 소재로 한 작업이다. 성능경은 신문에 실린 얼굴 사진을 접사로 촬영한 후 필름을 인화하였다. 그리고 인화된 사진의 눈 부위에 노란색 띠를 붙였다.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는 범죄자를 보도할 때 검은색 띠로 눈을 가리곤 했다고 한다. 범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눈을 가린 것이지만, 사실 검은 띠가 있다는 것은 범죄자라는 의미이다. 검은색 띠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신문 편집자의 판단에 따르는데, 작가는 그러한 편집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_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설명에서

그물코 스물 둘 ; 흰 빛이 쏟아지는, 흰 벽의 네모난 방바닥에 바싹 웅크리고 누운 '존재'의 몸들. 빛으로부터 숨으려는 듯, 실존의 무게를 참을 수 없다는 듯 그 몸들은 낮게 움츠렸다. 바닥은 그들이 가 닿은 가장 낮은 곳의 그늘이요, 가장 깊은 곳의 마음(深部)일지 모른다. 그 마음그늘의 바닥에서 벌거벗은 몸의 형상들은 스스로 참혹하다. 관객은, 벌건 대낮에 벌거숭이로 누웠으되 눈 맞춤할 수 없는 이 존재들 사이를 걸어야만 한다. 저 존재의 몸들은 '(너로서) 타자'가 아니라 '(나로서) 주체'일 것이다. 그들 사이를 걷는 것은 '스스로의 순례'일지 모른다. 우리가 저 몸의 존재들을 '너-너'로 밀어내지 않고 '나-나'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되고 그 스스로의 주체로서 '실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_ 김종길, 「존재의 무게」 중에서, 2017

● <경기 아카이브_지금,> 그물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운영

구분	평일	주말	신청방법
일반	11시, 14시 (2회)	14시, 16시 (2회)	현장 선착순 접수
단체 (15인 이상)	15시	-	사전 예약

단체 대상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gma.ggcf.kr) 및 031-296-1839~1840으로 문의바랍니다.

●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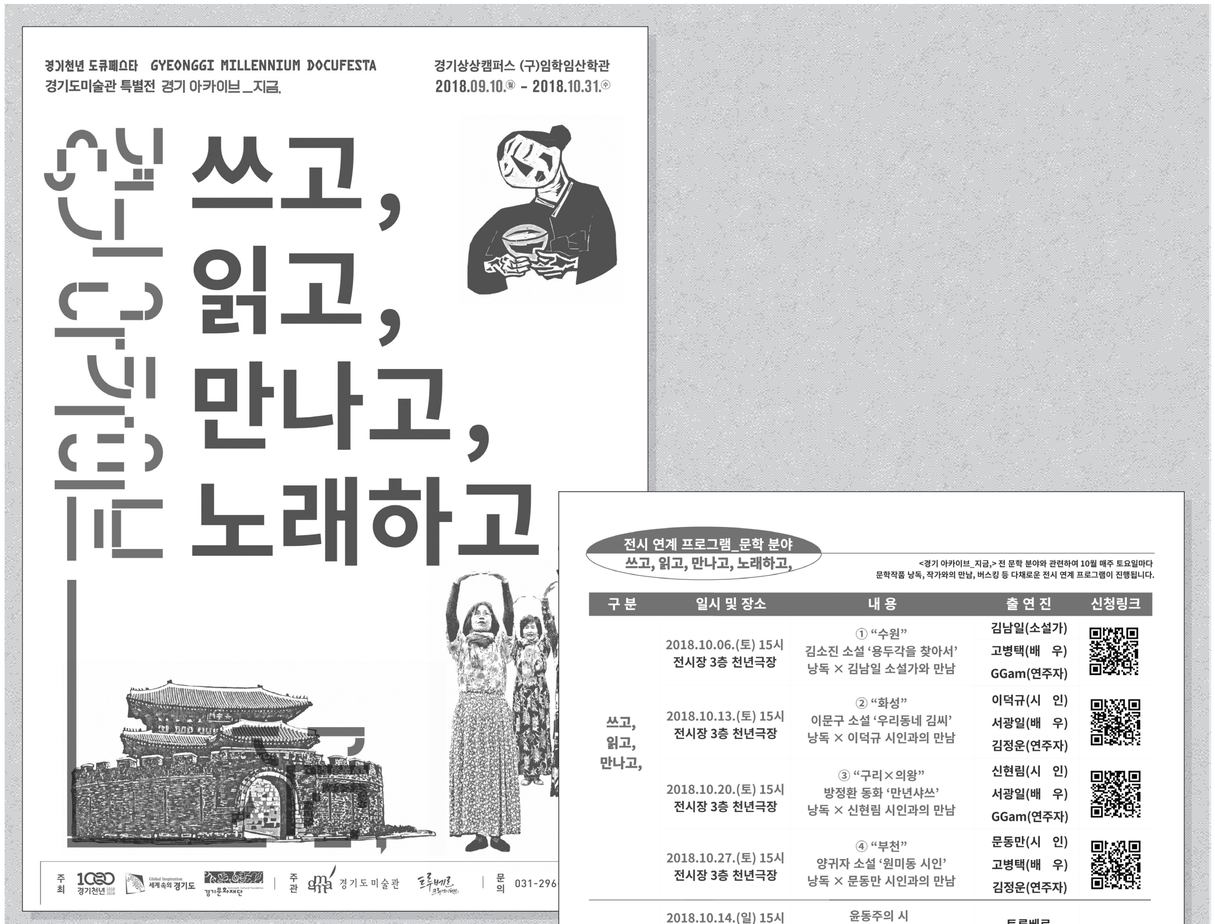
전시가 진행되는 9월~10월 동안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작가와의 대화>, <문학 낭독 및 공연> 등
＊ 상세 일정 및 참여방법은 홈페이지 공지(ggma.ggcf.kr)

● 전시 연계 부대행사 프로그램

미디어스크리닝 : 전시장 3층 천년 극장
경기도당굿 시연 : 2018년 10월 19일 경기상상캠퍼스 M3
출장 작곡가 김동산 공연 및 작가와의 대화 : 2018년 10월 28일 오후 5시, 전시장 3층 천년극장
＊ 상세 일정 및 참여방법은 홈페이지 공지(ggma.ggcf.kr)

● 전시 연계 독립출판 마켓 <두께상점> 운영

경기권 독립출판 60여종, 아트상품 20여종 판매 및 아카이브 전시합니다.
<두께상점> 전시 연계 워크숍 진행 : 천연염색 목걸이 만들기(9/14), 숨정화기 제작 워크숍(9.21),
독립출판 상담소(10.2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gma.ggcf.kr)또는 인스타그램 @thickness_sotre 참고
위치 : 경기상상캠퍼스 내 청년 1981 1층 팹카페 / 운영일정 : 9.10(월)~10.31(수) 10시~18시(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_문학 분야

쓰고, 읽고, 만나고, 노래하고,

<경기 아카이브_지금,> 전 문학 분야와 관련하여 10월 매주 토요일마다 문학작품 낭독, 작가와의 만남, 버스킹 등 다채로운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구 분	일시 및 장소	내 용	출 연 진	신청링크
쓰고, 읽고, 만나고,	2018.10.06.(토) 15시 전시장 3층 천년극장	① "수원" 김소진 소설 '용두각을 찾아서' 낭독 × 김남일 소설가와 만남	김남일(소설가) 고병택(배 우) GGam(연주자)	
	2018.10.13.(토) 15시 전시장 3층 천년극장	② "화성" 이문구 소설 '우리동네 김씨' 낭독 × 이덕규 시인과의 만남	이덕규(시 인) 서광일(배 우) 김정운(연주자)	
	2018.10.20.(토) 15시 전시장 3층 천년극장	③ "구리×의왕" 방정환 동화 '만년샤쓰' 낭독 × 신현림 시인과의 만남	신현림(시 인) 서광일(배 우) GGam(연주자)	
	2018.10.27.(토) 15시 전시장 3층 천년극장	④ "부천" 양귀자 소설 '원미동 시인' 낭독 × 문동만 시인과의 만남	문동만(시 인) 고병택(배 우) 김정운(연주자)	
노래하고,	2018.10.14.(일) 15시 청년 1981 야외공간	윤동주의 시 <바람이 불어> 등	트루베르	
	2018.10.28.(일) 15시 청년 1981 야외공간	<여행>, <스끼다시> 등	이지에프엠	

● 전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 참여방법은 QR코드를 통한 신청 또는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http://gmoma.ggcf.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진소개

김남일 소설가
1957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1983년 『우리 세대의 문학』에 단편소설 『메꾀』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책으로는 『장난꾸기』, 『메꾀』, 『국경』(전7권), 『일과 법과 자유』, 『전학무식』, 『세상의 어떤아침』, 『천재토끼 차상문』, 『산을 내려가는 법』 등이 있다.

이덕규 시인
196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1998년 『현대시학』에 시 『장수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다국적 구름공장 안을 엿보다』, 『법고창신 경전』, 『봄이었습니다』 등이 있다.

신현림 시인
1961년 경기도 의왕에서 태어나 1990년 『현대시학』에 시 『초록 말을 타고 문득』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기말 블루스』, 『해질녘에 아픈 사람』, 『침대를 타고 달렸어』 등이 있다.

문동만 시인
1969년 충북 보령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부천시 오정동에서 거주했다. 1994년 『살 사회 그리고 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나는 작은 땅콩도 두렵다』, 『그래』, 『구르는 것』 등이 있다.

고병택 연극배우
연극 <3월의 눈>, <트루 리브>, <알세스티스>, <바냐아저씨>, <돈남>, <한석전우>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극단 작은신화 단원이다.

서광일 연극배우
2000년 중앙신인문학상에 <복숭아>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연극으로는 <상록의 죽음>, <안산>, <맥베드>, <왕>, <알세스티스>, <왕은 왕이다>, <왕속의 꿈> <오늘, 손님 오신다>, <기장김 열 오박살>, <뒤바뀐 머리>, <복파>, <전환>, <코리아>, 콘티자> <에쿠우스>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극단 작은신화 단원이다.

이지에프엠 DJ 이지에프엠
이지에프엠은 삶과 이별, 혹은 사랑에 대한 우리네의 이야기들을 처절하지 않게, 과장되지도 않게, 그저 툴툴 던져져 편지를 한 장 써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을 들려준다.
GGaM(기타), 소울(드럼), 이리(보컬)
2010년 11월 1집 <운을 떼다>
2011년 12월 싱글 <긴자기>
2012년 5월 싱글 <아름다워 Live.ver>
2012년 11월 <모자란 하는 고백>
2014년 7월 싱글 <그댄 류>
2016년 12월 EP <그릇>

GGam 연주자
키자벤드 기타리스트, 가수 이노,
윤도현 러브브레드 라이브 세션,
J.Bel 2집 콘서트 라이브 세션,
정유정 소설 '28' 북 OST '작은나무' 작곡
및 밴드 이지에프앤(EasyFN) 세션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밴드 이지에프앤 기타리스트이다.

트루베르 Trouvère
프랑스어로 '음유시인'이란 뜻을 가진 트루베르,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는 이름다운 시의 원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서정적으로 관객들과 호흡한다.
Ffycal(기타), 니디아(보컬)
2007년 2월 싱글 <죽은 시인의 사회>
2013년 1월 10일 싱글 <나와 나타샤와 한당나귀>
2013년 6월 19일 EP <봉도의 어느 날>
2013년 12월 19일 싱글 <THE CLASSIC>
2015년 7월 31일 싱글 <Centennial>
2017년 3월 8일 트루베르 프로젝트 1 <너라는 꽃>
2017년 12월 6일 정규 <목소리 숨소리>

김정운 드러머
김정운 <Seop dance group> 국립극장 달오름 라이브 드럼, 뮤지컬 <할리와 초콜릿> 라이브 퍼무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이브 드럼,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랫츠 스프리스 락 페스티벌, 타임 투 락 페스티벌,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F1 Korea Grand Prix 라이브, 밴드 '스핏라이트' 정규 1집 콘서트 및 다수 클럽 라이브, 연대합창단 '이글스 싸이어' 2014·2015·2016 정기연주 라이브 연주, 전주시립합창단 2015 정기연주회 라이브 연주 등을 했다.

경기도 문화재 톺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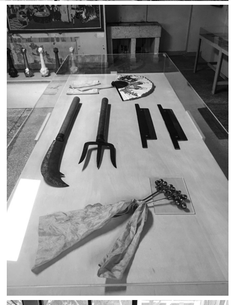
조두호 | 큐레이터(문화재 파트)

3. 서울 새남굿 보존회(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새남굿은 전통적인 망자천도굿으로 보통 진오귀(지노귀)라 하며, 상류층이나 부유층을 위해 베풀어지는 새남굿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굿거리가 많고 화려하며 정교한 짜임새를 보인다. 무(巫), 불(佛), 유(儒)의 관념과 의례가 혼합 편성된 특징을 지닌다. 또한 조선시대 궁중문화의 많은 요소가 수용된 점도 보인다. 굿청의 제반 장식과 만신들의 복식, 음악, 춤 등이 조선 왕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최초 보유자는 故김유감 선생이다. 현재 이상순 보유자에 의해 새남굿의 의례가 전승되고 있으며,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전통을 보존·연구하고 매년 정기공연을 연행한다.

출품자료 : 무구(월도창검, 작두, 방울, 부채, 오방기 등), 새남굿 정기공연 자료
전시위치 : 209호 B

문화재 보유자 전경


무구

무구2

4. 경기도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서울을 비롯한 한강 이북 지역과 수원·인천 등지에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목적으로 매년 혹은 2년이나 그 이상의 해를 걸러 정월 초나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마을단위의 굿. 이 굿은 1990년 10월 10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되었다. (출처_경기도도당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편, 2010. 11. 11., 국립민속박물관)

최초의 보유자인 故오수복(1924~2011)은 31세 때 신을 받고 경기도도당굿을 익혔으며 87세에 지병으로 별세할 시기까지 상처입고, 가난한 중생들을 위해 기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무녀이다. 이번 <문화재, 홀리고>에는 작고한 오수복 선생의 생전 공연자료가 출품되며, 다큐멘터리 영상과 민속원에서 발간한 경기도당굿 책자를 통해 경기도 큰 만신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출품자료 : 경기도당굿 공연자료
전시위치 : 209호 D

오수복 보유자

5. 경기도무형문화재 총연합회(대표 임웅수)

경기도무형문화재는 1987년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5개 종목으로 기능 38개 종목과 예능 27개 종목, 64명의 보유자를 지정하고 있다. 종목별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체계적인 전수교육의 실시와 다양한 작품 전시 및 공연과 강습 등으로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매년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공개행사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입체화하여 문화적 우수성과 예술성을 소통하고자 노력한다. 우리의 전통예술은 민족의 삶과 정서, 혼이 깃든 문화유산이다. (출처_경기도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인사말)

출품자료 :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도록 및 세미나북 등
전시위치 : 208호 G

문화재연구원 전경

경기무형문화재대축제 도록이미지

문화재연구원_사용선

근대 대중음악을 들어 보실래요?

이생강 | 큐레이터(대중음악 아카이브 파트)

SP판에는 <황성의 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본식 표현이라서 현재는 <황성 옛터>로 표기한다.

SP판은 표준시간 음반(standard playing record; SP)이란 뜻으로 78회전 음반이다. 1948년 LP가 개발되면서, SP판은 모두 사라졌다. 이번 전시에서 귀한 SP판과 당시 인쇄술과 디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재킷까지 세트로 감상할 수 있다.

성은 허무러져 빈 터인데 방초만 풀으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나
– 남인수 노래, <황석의 적> 중에서

남성의 간드러지는 목소리. 성이 무너진 옛 동네를 보고 눈물짓고 있으니, 듣는 이의 마음조차 처연해진다. <경기 아카이브_지금,>의 근·현대대 대중음악 아카이브 방에서는 한곡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바로 위 장면의 주인공인 가수 남인수의 <황성의 적>(1959년)이다.

<황성의 적>은 1928년 동방극단이 경기도 개성 공연을 떠났다가 황폐해진 만월대를 보고 작사가 왕평(본명 이응호)과 개성 출신의 작곡가 전수린이 망국의 비애를 절절하게 표현한 곡이다. 개성출신의 이애리수(1910-2009)가 극장을 돌며 불렀는데,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통탄 속에서 함께 부르며 유명해졌다. 이를 1931년 녹음하여 1932년 정식음반으로 발매하였다. 한국최초의 음반은 <낙화유수>(1927년_동명의 영화주제곡)이지만, 한국인이 쓰고 작곡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 대중가요로 많은 이들이 <황성의 적>을 뽑는 이유이다.

이처럼 근·현대 대중음악 아카이브에서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경기도와 인연이 있는 음악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 <아카이브 신문 2호> 이준희 대중음악 연구자의 경기도와 근대 대중음악에 관한 기획글을 참조하면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대중음악 아카이브 방 옆 '음악다방'에서는 아카이브에 전시되어 있는 SP음반, LP음반을 비롯한 가사지와 자료의 음원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아카이브 방에서 남인수의 <황성의 적>을 들었다면, '음악다방'에서는 1932년 이애리수의 <황성의 적>을 들어볼 수 있다. 어린 여성의 목소리로 황량한 마을을 읊조리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당시 사람들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보게 된다.

'음악다방'에서는 시대 순서대로 음악을 감상해볼 수 있는데, 20곡을 가만히 앉아 들어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 노래를 들었을까' 상념에 잠기게 된다. 패망의 한, 헤어진 누군가를 기다리는 애절한 사연, 죽은 이를 만날 수 없는 슬픔, 이제는 갈 수없는 고향에 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가사지에는 단출한 몇 글자 묵묵히 적혀있을 뿐인데, 노래하는 이는 하나같이 이렇게 애달플까. 한국 근대사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다. 음악 그리고 예술이 전하는 역사의 힘이 이런 것 아닐까.

70년대로 넘어가도 여전히 우리의 대중가요는 화려해지긴 하지만 어딘가 애처롭다. '그것이 한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지' 짐작할 뿐이다. 전시 연출 큐레이터로서 느낀 음악다방의 애잔하고도 미묘한 흥을 관객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 분위기 연출이 필요했다.

이번 음악다방 연출을 위해, 서울에서 오브제 컬렉터이신 박지천(네온 NEON)님이 귀한 빈티지 가구를 기꺼이 내어주셨다. 전시 오픈 전 급한 요청에도 한달음에 달려와 빈울(Binwool)작가님이 고즈넉하면서도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해주셨다.

빈울(이철수/Binwool, 1975b, 평택 태생)
본업은 타투이스트이다. 김준 작가와의 인연으로 미술계와 인연을 맺었다. 몸에 흔적을 남기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거기서 부스러져 나오는 흔적이 인생과 예술 비슷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폐자재와 이미 버려진 부스러기들로 조형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관심들은 주류에서 밀려난 스트릿 문화의 대중화로 관심을 옮기게 했다. 평택시와 홍대 지역을 오가며 자생하는 예술가들의 존중가치에 관한 "RESPECT(2013-현재)"와 좁은 의미의 취향에 관한 "WHEEL DIVE"를 기획했다.

음악다방 전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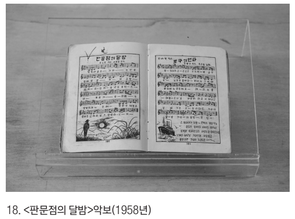
음악다방 전경2

'음악다방'에는 한국 사회에 블랙유머를 던지는 주재환(1941b.) 작가의 작품 4점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대중음악 전시 자료 목록

1	<황성의 적(황성 옛터)> 음반(1932년)	8	<이별의 인천항> 음반과 가사지(1955년)	15	<고랑포 아낙네> 음반(1953년)
2	제목 미상 노래책에 수록된 <만월대의 봄> (1930년대 초반)	9	<박시춘 작곡집>에 수록된 <비 내리는 인천항> 악보(1956년)	16	일본에서 제작된 <임진강 엘레지> 음반(1964년)
3	<선죽교> 음반(1949년)	10	<연안부두> 음반(1979년)	17	<판문점의 달밤> 음반(1958년)
4	<오백 년 고려성> 음반(1959년)	11	<강화도령> 음반(1963년)	18	<대중가요 제1집>에 수록된 <판문점의 달밤> 악보(1958년)
5	<남한산성의 밤> 가사지(1961년)	12	<박재란 히트 가요집>에 수록된 <강화도령> 악보 (1965년)	19	<비 내리는 판문점> 음반(1967년)
6	<애수의 제물포> 음반(1937년)	13	초판 이후 다시 제작된 <눈물의 연평도> 음반 (1964년	20	<녹슬은 기찻길> 음반(1972년)
7	<전오승 작곡집>에 수록된 <이별의 인천항> 악보 (1956년)	14	<한강> 음반(1953년)		

대중음악아카이브 전시 전경



18. <판문점의 달밤>악보(1958년)

1. <황성옛터>(1959년) 남인수 노래장면 영상 플레이

14. <한강>음반(1953년)
15. <고랑포 아낙네>음반(1953년)
16. <임진강 엘레지>음반(1964년)

전시장 속 영화관이라고요?

이생강 | 큐레이터(영상, 설치, 미디어 파트)

<경기 아카이브_지금,>이 펼쳐진 (구)임학임산학관 3층에 영상 작품을 위한 '천년극장'을 별도로 조성했다. 시각예술 작가들의 영상 작품을 스크리닝하면서, 다큐멘터리와 영화 작품을 상영하는 공간인 것.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Section 1)에서는 경기도와 인연이 깊은 시각예술 작가의 작품 15점을 스크리닝한다. Section 2)에서는 양평군, 광주시와 관련이 있는 다큐멘터리 2점을 상영한다. Section 3)에서는 근·현대 경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4점을 상영한다. 각 섹션별 내용과 열쳣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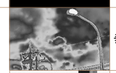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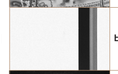
Section 1 시각예술 작가 영상 미디어 작품 스크리닝 (15점)
Section 2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회 (2점)
Section 3 (경기지역 로케이션) 영화 상영회 (4점)

#살려만상 #분단 #여성 #근대성 #도시 #이주 #위안부 #도시 #극락 #갯벌 #회초 #한국사 #낯선 그리움 #공동체 #저항 #시간 #덩어리 #엣 수원 #엄마 #왜곡 #신화 #환상 #시대정신 #사회참여 #신명 #아이러니 #고향

천년극장에서 상영되는 영상 작업들에게서 뽑은 열쳣말을 열거해놓고 보니, 이들은 서로를 횡과 종으로 교차하며 스스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중에서 의미를 확장하며 경기도와 함께 생각해 볼만한 열쳣말 6개를 선정하였다. 이 열쳣말을 길잡이 삼아 연결된 작품을 감상해 나가보면, 자신만의 개별 그물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영작품

– 시각예술 작가 영상 미디어 작품 스크리닝

순서	작가	작품 이미지	작품
1	금선희		천국의 문, 화해, 2014, 영상 미디어, 23분
2	김기라		이념의 무게_마지막 잎새, 2014, HD 비디오, 사운드, 34'13"
			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 2014, 4 채널 HD 비디오, 35'34"
3	무진형제		좋은세상, 2017, 싱글 채널 비디오, 5'30"
			비화, 2016, 싱글 채널 비디오, 13'08"
			풍경, 2016, 싱글 채널 비디오, 20'57"
4	믹스라이스		섞인 말들, 2004, 영상 미디어, 3분
5	박찬경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애, 2010, 다큐멘터리, 102분
6	임흥순		위로공단, 2014, HD 비디오, 5.1채널 사운드, 95분
7	정은영		(오프)스테이지/마스터클래스, 2013, 공연기록영상, 1시간 25분
8	조영주		꽃 가라 로맨스, 2014, 영상 미디어, 6'51" 디바들의 외출, 2015, 영상 미디어, 6'25" 그랜드 큐티, 2015, 영상 미디어, 7'34" DMG_Demilitarized Goddesse, 2015, 영상 미디어, 8'51" 워터리 마담, 2015, 영상 미디어, 11'46"

–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회

순서	작가	작품 이미지	작품
1	권효		그리고 싶은 것, 2012, 다큐멘터리, 92분
2	서동일		두물머리, 2013, 다큐멘터리, 95분

– 영화 상영회

순서	작가	작품 이미지	작품
1	최인규		<수업료>, 1940 출연 : 복혜숙, 김신재, 전택이, 김이제, 문예봉 ※ 한국 최초의 아동 주인공 영화(수원시)
2	신상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961, 103분. 출연 : 최은희, 전영선, 김진규, 한은진, 도금봉, 김희갑 ※ 수원시 로케이션
3	이원세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977, 112분, 35mm, 컬러, 1.66:1 출연: 김재성, 이경태, 김현성, 박근형 ※ 시흥시 염전 로케이션
4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1981, 100분, 원작 조세희 출연: 전양자, 안성기, 김추련, 금보라, 전영선 ※ 시흥시 염전 로케이션

상영 일정

◉ 미디어 작품 스크리닝 ❖ 다큐멘터리 상영회 ❖ 영화 상영회

시간 \ 요일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근대성	*#아니러니*	*#공동체*	*#도시*	*#낯선 그리움*	*#저항*
12:00	월요일 휴관	2 ❖ 그리고 싶은 것	3 (오프)스테이지/마스터클래스	4 ❖ 두물머리	5 ◉ 풍경	6 *특별상영회 <삽질>	7 ◉ 이념의 무게_ 한낮의 어둠
16:00		◉ 천국의 문	◉ 꽃가라로맨스, 디바들의 외출, 그랜드큐티	◉ 좋은 세상	❖ 수업료		◉ 비화
12:00		9 ◉ 위로공단	10 ◉ 이념의 무게_ 마지막 잎새	11 ◉ 섞인 말들	12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애	13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4 ◉ 비화
16:00		❖ 수업료	❖ 그리고 싶은 것	◉ 꽃가라로맨스, 디바들의 외출, 그랜드큐티	◉ DMG_Demilitarized Goddesse, 워터리 마담	❖ 그리고 싶은 것	❖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12:00		16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7 ◉ 섞인 말들	18 ◉ 이념의 무게_ 마지막 잎새	19 ❖ 두물머리	20 ◉ 천국의 문	21 ◉ 이념의 무게_ 한낮의 어둠
16:00		◉ 천국의 문	◉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애	◉ 섞인 말들	수업료	◉ (오프)스테이지/마스터클래스	◉ 위로공단
12:00		23 ❖ 그리고 싶은 것	24 ◉ (오프)스테이지/마스터클래스	25 ◉ 좋은 세상	26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27 ◉ 이념의 무게_ 마지막 잎새	28 ❖ 엄마없는 하늘아래
16:00		◉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애	◉ 비화	❖ 두물머리	◉ 섞인 말들	◉ DMG_Demilitarized Goddesse, 워터리 마담	◉ 좋은 세상
12:00		30 ◉ (오프)스테이지/마스터클래스	31 ◉ 꽃가라로맨스, 디바들의 외출, 그랜드큐티				
16:00		❖ 수업료	◉ 이념의 무게_ 한낮의 어둠				

※ 특별상영회 : 10월 6일, 요절한 영화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 姝 최고은의 영상 작품 <삽질>을 상영합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문학공연 시간에는 상영회를 잠깐 쉽니다. 문학공연은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그리고 21일과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발행인 : 김현태(대표이사 직무대행) | 편집인 : 최은주 | 편집장 : 김종길 | 기획·편집 : 최윤정, 이생강, 조두호, 남선현 | 지원 : 최지원, 정수진, 이유림, 전유정 | 글 : 김종길, 최윤정, 조두호, 조성면, 이생강 | 사진자료 : 이현석 / 김종길, 최윤정, 이생강, 조두호, 김현자, 조성면, 별난극단, 안은미 컴퍼니, 트루베르크리에이티브 | 교정·교열 : 김종길 | 디자인 : 베이스라인 | 인쇄 : 정산인쇄 | 수석큐레이터 : 김종길 | 큐레이터 : 최윤정, 이생강, 조두호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이유림, 전유정 | 에듀케이터 : 최지원, 남선현, 정수진 | 외부 자문 : 고영직, 박설희, 윤석정, 이덕규 | 외부 협력 : 이준희(대중음악), 최연하(기록아카이브) | 총괄 : 최은주 (경기도미술관 관장) | 지원 : 경기도미술관 학예팀(팀장 박우찬, 박본수, 김지희, 김윤서, 최혜경, 방초아, 강민지, 장남호, 감상은, 안진선, 윤난영, 박소현), 기획운영팀(팀장 권영기, 정승희, 이지연, 이문희, 최기영, 장효진, 한정원, 정선희, 심길영), 경기천년TF : 서정문(문화예술본부장), 문화사업팀(팀장 조병택, 최진호, 윤가혜, 이상민, 성형모), 정책실(실장 김성환), 경기도미술관(팀장 박우찬, 김종길), 지역문화팀(팀장 황순주, 박정호, 임은옥, 유상호, 채지영), 미디어마케팅팀(팀장 김대영), 기획조정팀(팀장 원준호, 김범수) | 공간디자인 : 다이아거날 써츠 | 공간 구조물 제작 : 수니빠니, 오래우드, 동원철제 / 무늬만커뮤니티(자문) | 과정 아카이브 : 기억하는 용기(김진주) | 후원·협력 : (사)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사)경기도박물관협회, (사)한국작가회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이 신문은 경기도미술관이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_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 아카이브_지금,>"의 전시 홍보를 위해 제작했습니다. 본 신문에 실린 글과 사진 등은 자료 제공자 및 경기도미술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http://ggma.ggcf.kr/ 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천년 GYEONGGI MILLENNIUM DOCUFESTA
도큐페스타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 아카이브_지금,

GMoMA Special Exhibition
GYEONGGI ARCHIVE_NOW,

“Good! Gut!”

경기천년 굿 : 도당굿·안택굿·새남굿
안은미컴퍼니 굿굿 퍼포먼스

2018.10.19.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6:00

경기천년 굿 | 오전 10:00 - 오후 5:00
굿굿 퍼포먼스 | 오후 5:00 - 오후 6:00

경기상상캠퍼스
M3 공연장+야외 마당

경기천년 굿

경기도(서울포함) 전역에서 성행했던 도당굿, 안택굿, 새남굿은 국가부터 가정, 개인에게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의례이자 전통문화의 원형이다. 근현대를 거치면서 서구문화의 이입으로 전통문화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이번 ‘경기천년맞이 굿’의 시연을 통해 우리의 무형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구성: 돌돌이-부정굿-본향 산거리-불사거리-꽃반세우기-대안주-창부거리-자리걷이-사제삼성-말미-도량 베가르기-군웅굿-작두거리-뒷전

굿굿 퍼포먼스

<Good! Gut!> 퍼포먼스는 안은미컴퍼니 무용수들의 논스톱으로 달리는 육체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무용수들의 브레이크 없는 퍼포먼스는 감각의 집인 몸과 마음을 깨우고, 생명의 몸으로서 자연의 리듬을 찾는 개개인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삶의 터전의 안녕과 무사를 기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흥과 가락이 흐르는 안은미 만의 독특한 현대 굿판을 선보이고자 한다.

구성: 달리는 퍼포먼스 (무용수)-즉흥의 장단과 DJ파티-관객들과 함께하는 댄스타임

경기천년 굿 출연진

오진수(국가무형문화재 98호 경기도도당굿 전수교육조교), 김순중(국가무형문화재 98호 경기도도당굿 이수자), 정영도(경기도 무형문화재 61호 자리걷이 보유자), 임영복(12거리전수소 원장, 경기안택굿 전수교육조교), 장현수(부천 장말도당굿 도당할아버지), 고성주(경기 안택굿 명인), 정영도(경기도 무형문화재 61호 자리걷이 보유자), 강영림(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이수자), 이상순(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보유자), 강민정(중요무형문화제 제104호 서울새남굿 이수자), 한상훈(경기도 안택굿 전수자)

경기천년 굿 악사

피리 박근형(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이수자), 대금 장영수(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해금 김정훈(전북도립국악원 교수 역임), 장구 변진섭(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전수교육조교), 장구 유재헌(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전수자), 징 김영은(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이수자)

안은미컴퍼니 퍼포머

안은미, 남현우, 김혜경, 박시한, 하지혜, 김승해, 고동훈, 김지연, 이제성, 황윤중, 김형진, 조현도, 이정우, 김지혜, 조단비, 이재윤, 정영민, 배효섭 외 다수. 장단 박범태, DJ 오석근, VJ 이진원

주최 경기천년 1018 2018 |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주관 gma 경기도미술관 | 별난극단 | 안은미컴퍼니

기획·연출 강소하, 변진섭, 안은미